

# 소련과 한국전쟁 : 러시아 비밀 해제 당안 속의 역사 진상

沈志華(中國史學會 東方歷史研究中心 연구원, 역사학)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50년 동안 소련과 한국전쟁과의 관계, 한국전쟁에서의 소련의 역할과 지위에 관해서는 상세한 문헌 증거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추측과 분석 및 유추에 근거해서 서술하고 평론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상황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러시아 역사 당안 대부분이 비밀이 해제되어 공포되었으며,<sup>1)</sup> 각국 학자들은 계속적으로 발표된 당안 문헌에 의거하여 연구하면서 소련과 한국전쟁의 상호관계된 진실에 점차 접근해 가고 있다.<sup>2)</sup> 본문은 러시아의 많은 비밀 해제

1) 1994년 6월, 엘친 대통령이 한국전쟁에 관한 215건의 서류를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네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신문에서 잇따라 이 서류 내용들을 발표하였다. 그 후 러시아 신문에서 끊임없이 이에 관한 역사 문헌을 신문에 게재했다. 미국의 월슨 국제학자들의 중심과 국가안전문서국에서도 대량으로 한국전쟁에 관한 문서를 수집하였다. 게다가 그 중의 상당 부분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CWIHP Bulletin*(『冷战国际史项目公报』)에 발표하였다. 필자는 러시아 서류 중의 중소 왕래에 관한 전보문과 회담 기록의 중문 번역문을 1997년의 『世界史年刊』에 발표하였다. 문서는 모두 138건인데 주해까지 달려 있다.

당안을 정리하고 분석한 기초 위에,<sup>3)</sup> 한국전쟁에서 진행된 소련의 각 단계 속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개괄적인 논술을 진행함으로써 소련의 지지, 계획, 지도 및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한 역사 진상을 반영하였다.

## 1. 스탈린은 김일성의 진공 계획을 지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 모스크바는 한반도 정책에 대해 초보적인 윤곽만이 있었는바, 즉 그곳에 소련의 극동 지역 안전판을 세우는 것이었

- 
- 2)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Волкогонов, Д., “Спедует Ли Этого Бояться?”, *Огонёк*, 1993 г. No. 26 ; A. Торкунов, & E. Уфимцев, *Корейская Проблема : Новьгий Взгляд*, Москва, 1995г ; E. Bajajnov, “Assessing the Politics of the Korean War 1949~51”, *CWIHP Bulletin*, No. 6~7(1995, 1996) ; A. Mansourov, “Soviet-North Korean Relations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aper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Hong Kong : 1996. 1) ; “Stalin, Mao, Kim and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ept. 16~Oct. 15, 1950 : New Evidence from the Russian Archives”, *CWIHP Bulletin*, No. 6~7(1995, 1996) ; Mun Su, Park “Stalin’s Policy and The Korean War : History Revisited”, *Korea Observer* ; Vol. 25, No. 3(1994) ; V. Petrov, “Mao, Stalin and Kim Il Sung : An Interpretative Essay”,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13, No. 2(1994) ; K. Weathersby, “The Soviet Role in the Early Phase of the Korean War : New Documentary Evidence”, *The Journal of American-East Relations*, Vol. 2, No. 4(1993) ; “Stalin and a Negotiated Settlement in Korea, 1950~1953”, Paper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Hong Kong : 1996. 1) ;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1945~1950 : New Evidence from the Russian Archives”, *CWIHP Working Paper*, No. 8(1993) ; “Korean, 1949~1950 : To Attack, or Not to Attack? Stalin, Kim Il Sung, and the Prelude to War”, *CWIHP Bulletin*, No. 5(1995).
- 3) 필자는 근년에 한국전쟁에 관한 400여 건의 러시아 문서를 수집하였는데, 그 중 대부분은 원 서류의 복사본이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복사되었기 때문에 유관 서류의 원시 소장과 서류의 번호가 없어졌다. 따라서 필자 자신이 만든 문서 번호대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SD\*\*\*\*\*)

다. 1945년 6월, 소련 외교부 제2극동사에서 제출된 조선 문제에 대한 참고 보고에는, 분명히 알타회담 후 몇 개월 동안은 소련의 조선 문제에 대한 고려는 원칙적 내용임을 설명하고 있다. 또 포츠담 회담 개최시에 참석할 소련측 인사에게 배경 상황을 제공하는 보고에는,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조선이 앞으로 소련에 대한 침략 기지로 사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침략이 일본이건, 극동에서 소련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다른 국가의 어떠한 시도일지라도 상관없다. 조선 독립과 소련 극동 지역 안전의 가장 효과적인 보장은 소련과 조선과의 우호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장차 조선 정부가 건립될 때 이 점을 꼭 반영하여야 한다”<sup>4)</sup>고 하였다.

전후 초기에 소련은 미국과 극동 지역에서 이미 갈등이 있었고, 또 합작을 해야 했으며, 이미 세력 범위를 나누어 직접적인 충돌을 피해야만 했다. 한반도 38선의 확정도 바로 이런 상황의 반영이다.<sup>5)</sup> 대체로 전후부터 1949년 초까지, 소련은 우선적으로 위탁 관리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 미국과 합작으로 조선에 소련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통일된 조선 정부의 건립을 시도하였다.<sup>6)</sup> 미국과의 갈등이 점차 확대되자, 조선 북방의 정치·경제 능력을 강화시켜 이런 기초 위에 조선 민족의 통일을 촉진시키고 중국에는 전 조선의 보통 선거를 거쳐 건립된 통일 정부가 대소 우호의 실행을 보증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sup>7)</sup> 이 시기 미소간의 냉전이 심

4) 1945년 6월 29일, 茹可夫와 托布羅金的 보고서, 러시아대외정책문서국, 전주지0430, 목록2, 문서주지18, 권주지5, p. 18030.

5) 沈志華, 『朝鮮戰爭揭密』(香港天地: 圖書有限會社, 1995)第2章第1节 “三八线的划定及其作用”을 참조

6) 일본 식민지와 신탁 통치 지구 문제에 관한 외교부의 관련 의견은 다음과 같다. 1945년 9월, 조선 문제에 관한 외교부의 건의, 러시아대외정책문서국, 전주지04311, 목록1, 문서주지52, 권주지8, pp. 40~45. 威瑟斯比(K. Weathersby), “苏联在朝鲜的目标”, pp. 9~11에서 인용; 1945년 12월 10일, 馬立克的“朝鲜临时政府问题的报告”, 러시아대외정책문서국, 전주지0102, 목록1, 문서주지15, 권주지1, pp. 18~21.

화하여 베를린에서는 심지어 군사 대치가 있었지만, 극동에서 소련은 여전히 미국과 평화 상태를 유지하였고, 1949년 3월 김일성의 방소 전까지 소련과의 비밀 동맹 관계 건립 요구마저도 모스크바의 완곡한 거절을 받았다.<sup>8)</sup>

한반도 남북 쌍방이 전후로 1948년 여름 각기 선거를 실시하여 단독 정부를 설립하자 소련은 즉각 미소가 동시에 한반도에서 철군할 것을 제안하고, 아울러 소련의 우선 철군을 실행하였다. 모스크바의 목적은 소련이 극동 지역 평화를 희망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미군의 철수를 재촉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련은 북조선 장악에 만족하였으며, 한편으로 북조선이 남측에 대항할 능력이 충분하며 심지어는 평화 수단을 통한 한반도 통일을 믿고 있었다.<sup>9)</sup>

38선이 확정되자 모스크바의 북조선과 워싱턴의 남조선은 바로 대립 상태에 처하였다. 특히 한반도 남북 쌍방이 각자 단독 정부 기구를 세우고 소련 점령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자 이후 형세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승만과 김일성은 모두 군사 수단을 통해 한민족 통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38선 부근의 마찰과 교전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다. 1949년 초부터 조선 주재 소련 대사관은 모스크바에 남조선 진공에 관련된 급전을 계속적으로 보냈다.<sup>10)</sup> 그러나 평양의 요구로 모스크바는 북조선에 무기를 원조하여 38선에 2개 경비 여단을 무장시키는 데 동의하고,<sup>11)</sup> 또 소련 해군이 청진항에 계속 남아 조선에서의 방어를 진행시키는

7) 沈志華, 『毛宅东·斯大林与朝战』(香港天地: 图书有限公司, 1998), 第2章第2节 “苏联在朝鲜半岛的战略化政策”을 참조.

8) 1949년 1월 19일, 슈티코프가 모스크바에 보낸 전보문을 참조, SD00206.

9) 1949년 6월 5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을 참조, SD00236.

10) 1949년 1월 27일, 2월 3일, 슈티코프가 몰로토프에게 보낸 전보문, SD00207, SD00209 ; 1949년 2월 4일, 슈티코프가 모스크바에 보낸 전보문을 참조, SD00211.

11) 1949년 2월 3일, 슈티코프가 몰로토프에게 보낸 전보문, SD00208 ; 1949년 2월 4일,

것을 결정<sup>12)</sup>한 이외에 스탈린은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조급해 하지 않았다. 3월 초 김일성과의 회담 중에 스탈린은 남북 쌍방의 군사력 비교 상황 및 38선 부근에서 발생한 소규모 군사 충돌의 결과를 가볍게 질문하였고, 김일성의 믿음에 가득 찬 답변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는 정도였다.<sup>13)</sup>

이후 남북 쌍방의 긴장 국면은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미군 철수를 전후하여 남조선 이승만 정권은 계속 전쟁을 언급했으며 북측에 대해 군사 도발과 경계선 침범을 되풀이했다. 1949년 4월 20일, 국방부장 허시리푸스키와 총참모장 시즈민커가 38선의 형세를 스탈린에게 보고하면서, “우리가 북조선에서 철수하자 ‘남측’의 38선 규정 파기가 이미 도발적이며 상시적으로 있어왔다. 근 1개월 동안 이런 규정 파기 사건이 빈번하다”, “금년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38선에서 37차례의 규정 파기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였다. 보고서는 남조선이 “북조선 정부 군대에 대해 새로운 도발 행동을 택하였고 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소련군측은 “북조선 정부 군사령부에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남측’의 대규모 도발 행위에 반격 하도록 건의하였다.”<sup>14)</sup>

5월 2일, 조선 주재 소련 대사 슈티코프 보고서에는, “남조선 당국이 북방의 무장 침입 실행 계획을 위해 ‘국방군’ 인원을 확대했다. 정보에 따르면 ‘국방군’ 인원은 이미 금년 1월 1일 5만 3,600명에서 1/4분기 말 7만 명으로 증가했다. 동시에 그들은 특히 기술병, 기계화군, 특수군을 중시하여 이런 군사가 1~3배로 증가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

비류조프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보문, SD00210.

12) 1949년 3월 18일, 소련 연방공화국 중앙정치국 회의 제68호 기록, SD00223.

13) 1949년 3월 5일, 스탈린의 조선 정부와의 담화 기록, SD00220.

14) 1949년 4월 20일, 바실리예프스키와 슈텐멘코가 스탈린에게 올린 보고서,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3, 목록65, 문서주지839, pp. 13~14.

“남조선 당국이 38선 부근 지역에 집결시킨 부대가 이미 4만 1,000여 명에 달하며 그 중 평양 방면으로 향하는 인원은 3만 명이다. 북방 진공 작전 계획은 이미 결정되었고, 아울러 제1여단의 부대장에게 전달되었다. 6월 중 적극적인 행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sup>15)</sup> 5월 28일, 슈티코프는 모스크바에 김일성의 통보를 전달하였다. “남조선군의 몇 개 대대가 금천시 이남 45km 학정리 일대에서 공격을 시도하였다. 남조선의 1개 대대가 38선 이북을 향해 진출하여 고지를 점령하였다”고 하였으며, “남조선군 지휘부는 이미 개성 지역에 2개 대대를 집결하여 38선 이북의 몇 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첩보에 따르면, “춘천 지역 철원 방면으로 남조선은 이미 보충대 2개 대대와 제6여 제8단의 1개 대대를 집결시켰다”고 하였다. 김일성의 통보에는 또 “남조선측은 최근 제주도 사건 진압에 참가한 부대를 38선 부근으로 배치하였다”고 되어 있다.<sup>16)</sup>

6~7월에 형세는 더욱 긴장되었다. 6월 18일, 슈티코프 보고에는 남조선 지도자 모두가 “군사 방법을 이용해 국가 통일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단지 시간 확정 문제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조선 군대와 경찰은 여러 차례 웅진 지역에서 마음대로 38선을 월경하고 있다. 이 지역의 전투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남조선 부대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남조선 부대가 한 차례 북방 지역 10km까지 침입하였다. 북방 경비 여단이 행동을 취하자 38선으로 되돌아갔다. 북조선 부대가 전술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고지 2개를 점령하여 현재 쌍방이 고지 쟁탈을 위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웅진 지역 사건으로 이승만은 6월 11일 정식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공산당에게 중대한 손실을 안겨 줄 돌격 계획을 제정하였으며 최근 2~3주 내에 이 계획을 실현할

15) 1949년 5월 2일, 슈티코프가 모스크바에 보낸 통보, SD00230.

16) 1949년 5월 28일, 슈티코프가 그로미코와 슈테멘코에게 보낸 전보문, SD00234.

것”이라고 하였다.<sup>17)</sup> 7월 13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내는 전문 속에는, 웅진 지역에서 포로가 된 남조선 사병(18단 2대대 소속)의 첩보에 근거하면 “그들의 지휘관은 7월 이후 여러 차례 북조선군이 남방을 공격할 것이라는 단언을 해왔으며, 따라서 남조선군은 기선을 제압하고 북조선군에 기습적인 타격을 가하여, 8월 15일(광복절) 전에는 북조선을 점령할 것이라고 얘기하였다”고 한다. 포로의 첩보에 따르면 “제12단의 임무는 격리산 고지(格里山, 해주에서 서쪽으로 30km)이다. 제18단의 임무는 웅진 지역에서 출발하여 제13단(현재의 정보에 따르면 그 단은 개성 지역에 배치됨)의 협조로 북으로 진공하여 해주를 포위하고 도시 북측 군대 집단을 섬멸하여 1주일 내에 해주도를 점령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슈티코프는 이승만이 발표한 “7월 북방 군대에 대한 공격을 한다”는 정보를 통보하였다.<sup>18)</sup>

이런 국면에 직면하여 김일성은 한편으로 소련에 무기 장비의 원조를 부단히 요구하면서,<sup>19)</sup> 한편으로 인민군 정치부 주임 김일을 북평(북경)에 비밀리에 파견하여 중공의 지도자들과 중국 인민해방군에 편성된 조선족 부대를 인민군에 전속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고, 군사 행동을 취할 의향을 밝혔다. 모택동은 필요한 시기에 중공군 2개 조선 사단을 북조선에 넘겨줄 수 있으며,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중공은 “힘이 닿는 모든 원조, 특히 상술한 사단의 식량과 무기를 제공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모택동은 “권고 조선 동지”에서 미국이 철수하고 일본인마저 돌아오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또한 “남조선에 공격을 할 필요가 없으며 좀더 유리한 기회를 기다린다”고 하였다.<sup>20)</sup>

17) 1949년 6월 18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SD00237.

18) 1949년 7월 13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SD00242.

19) 1949년 5월 2일,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문, SD00229 ; 1949년 6월 22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SD00238.

20) 1949년 5월 15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SD00231 ; 1949년 5월 18일,

스탈린의 태도는 모택동과 의견을 나누지 않았지만 합치하였다. 모스크바는 북조선이 침범받지 않는다는 보증<sup>21)</sup>과 동시에 슈티코프가 제출한 건의, 즉 미군이 남에서 철수하면 소련도 청진의 군사 기지와 소련이 평양에 설치한 군용 비행장을 철폐한다는 계획을 비준하였다. 이런 시설은 조선인민군이 이용함에 따라 소련이 국제 형세에서 수동적 위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22)</sup> 이외에 소련은 북조선에 조국통일민족전선을 형성하여 전 조선의 보통 선거 실시를 통한 평화 통일 실현을 주장하였다.<sup>23)</sup>

모택동과 스탈린은 모두 북조선의 주도적인 군사 행동을 바라지 않았지만, 김일성의 남측 위협에 대한 반응은 오히려 매우 강하였다. 그는 심지어 군사 수단을 통해 조선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라고 만족해하고 있었다. 적극적으로 군대를 배치하여 방어 부서를 운영<sup>24)</sup>하는 외에 7월 초 평양은 이미 38선 지역 각 부대에 전투 준비 명령을 하달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조선사를 조선에 재배치시키도록 결정하였다. 삼양사(瀋陽師)는 신의주에, 장춘사(長春師)는 나남에 배치하였다.”<sup>25)</sup> 준비가 끝나자 9월 3일, 김일성의 개인 비서 문일(文日)이 소련 대사관에 남조선이 최근 웅진 반도 38선 이북의 부분 지역을 탈취하려 하였고 해주시의 시멘

코발레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문, SD00232.

- 21) 그 당시 소련이 조선에 제공한 대량 무기는 모두 방어성적인 것이었다. 무기의 명세서는 1949년 6월 4일, 맨시코프와 슈테덴코가 슈티코프와 골로빈에게 보낸 전보문을 참조.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6, 목록9, 문서주지14, p. 57. 6월 25일, 슈티코프의 보고는 “조선 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전제는 남쪽의 위협이다”라고 언급하였다. 托亞庫諾夫外, 『关于朝鲜问题的新观点』, pp. 20~21.
- 22) 1949년 7월 2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SD00241.
- 23) 1949년 6월 5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SD00236; 1949년 6월 24일, 비신스키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보문, SD00239; 1949년 6월 28일, 슈티코프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보문, SD00240.
- 24) 조선인민군을 동원한 자세한 상황은 1949년 6월 22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을 참조, SD00238.
- 25) 1949년 7월 13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SD00242.



트 공장을 포격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따라서 김일성은 남측에 대한 군사 행동을 허락하고 웅진 반도 및 그 이동 개성 부근의 남조선 부분 지역을 탈환하는 방어선 단축을 요구하였다. 아마 국제 상황이 허락했다면 계속적으로 남측을 향한 줄기찬 공격이 준비되었을 것이다. 김일성은 2주 혹은 길게는 2개월이면 남조선을 점령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다.<sup>26)</sup>

조선 주재 소련 대사관 대리 둔진의 보고에는, 북조선이 제공한 남측의 공격 정보에 관해서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sup>27)</sup> 9월 11일, 비신스키의 회답 전문에는, 둔진이 신속히 김일성과 만나 좀더 분명히 해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남조선 군대 및 그 인원, 무기 장비와 전투력, 조선 남방 유격 운동의 상황, 북측이 먼저 공격을 할 경우 여론과 인민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남측의 군중이 북측 군대에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 김일성은 북측이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알고 있는가, 북측은 자신의 군사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등이다. 동시에 둔진 스스로 정황 및 조선 지도자가 건의 제출했던 것에 대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sup>28)</sup>

둔진은 9월 12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김일성과 박헌영을 만나고, 9월 14일 모스크바에 남조선과 북조선 군사 능력의 상세한 상황, 김일성의 생각 및 본인의 견해를 보고하였다. 보고에는, “김일성은 남조선 군대의 전투력이 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고 하였고, 북측 군대는 “기술 장비(탱크, 화포, 비행기), 기술, 장교 훈련 소질 및 사기 방면에서 모두 남측 군대를 능가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과 인민의 공격 행위에 대

---

26) 1949년 9월 3일, 툰킨이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외정책문서국, 전주지 059a, 목록5a, 문서주지4, 권주지11, pp. 136~138.

27) 위의 전보문.

28) 1949년 9월 11일, 비신스키가 툰킨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외정책문서국, 전주지 059a, 목록5a, 문서주지3, 권주지11, p. 45.

한 반응에 관해서는 김일성의 심중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는 “만약 내전이 지연된다면 그들은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의 조건은 신속한 승리를 바랄 수 없다”고 인식하여 국내 전쟁을 주장하지 않고, 단지 용진 반도와 그 이동 개성 부근의 남조선 부분 지역을 탈환하는 것을 건의했을 뿐이다. 아울러 북측 군대가 남조선에 진입했을 때 “남조선에서 일련의 혁명역량을 조직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만약 순리적으로 진전되면 “계속 남쪽으로 뺏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조선에서 내전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직접 출병하여 간섭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둔진 본인은 오히려 김일성 계획 중 국부적 전투가 바뀌어 틀림없이 조선에 내전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였다. “남측에 대한 신속한 승리는 북측 군대가 그리 강하지 않으며”, 또 “지구적 내전일 경우 군사적으로나 아니라 정치적으로 북측에 불리하다” 따라서 “김일성이 예상하는 국부적 전투의 발동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sup>29)</sup>

그러나 슈티코프 대사는 도리어 상반된 견해였다. 그는 둘째 날 스탈린에게 보내는 장문의 전보에서 김일성의 계획에 찬동을 표시했다. 슈티코프는 우선 조선 지도자의 기본 견해를 강조하였는데, 조선 인민은 통일을 요구하고 있으며, 평화적 조국 통일 방법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만약 현재 군사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통일을 실행한다면 통일 문제는 몇 년 지연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남조선 반동파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남측의 민주 운동을 진압”하고 있으며, “더욱 강력한 군대를 건립하여 조선 북방을 공격할 수 있고”, “북측에서 몇 년간 이룬 모든 것을 소멸시킬 것이다”라고 하였다. 슈티코프는 남북조선의 경제와 정치 형세를 상세하게 소개하였는데, 그는 “남조선 정부의 정치 지위는 견고하지

29) 1949년 9월 14일, 툰킨이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외정책문서국, 전주지 059a, 목록5a, 문서주지3, 권주지11, pp. 46~53.

않으며”, 한반도 형세는 북측에 유리하다고 인식하였다. 설사 “미국인이 이번 충돌에 간여하여 남조선에 적극적 협조를 제공한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인민군의 수와 소유하고 있는 물질 능력이 현재 남측 군대를 완전히 분쇄하거나 남조선 점령을 보증할 수 없지만, 그는 여전히 “조선 남쪽의 유격 운동이 야기하는 각종 각양의 지지와 지도는 가능하고 적합하며” 유리한 형세에서 “남조선인의 38선에서의 도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38선을 파괴한 징별로 웅진 반도와 개성 지역을 점령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sup>30)</sup>

당시 아시아 정세의 발전은 소련의 미국과의 대항 정책에 매우 유리하였다. 즉 중국 혁명은 미국의 간섭이 없이 이미 순리적으로 승리를 이루었으며,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했고, 조선인은 혁명 정서를 고양하고 있었으며, 남조선 사회 내부의 경제와 정치 상황은 불안정하다는 등등이다. 그러나 스탈린은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을 거절하였다.

9월 24일 소련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조선의 상황을 다루고 나서 결의를 하였고, 슈티코프에게 결의된 내용을 엄격히 김일성과 박헌영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즉 “지금 북조선의 무장 능력은 남조선과 비교하여 약간의 우세도 없으며, 현재 남방에 대한 공격 준비가 잘된 것이 아니기에 군사적 측면에서 허락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쪽에서의 유격 운동과 군중 투쟁은 적극적이지 못하며 해방구의 건립과 인민의 조직도 매우 적다는 점에서, “정치적 측면에서 당인들이 건의한 대남 진공 역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외에 웅진 반도의 진공과 개성 지역 점령의 국부적 전투는 “조선의 남북 전쟁 개시”로 의미가 있으며, 전쟁의 장기화는 “미국에 조선에 대한 각종 간섭과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현재 조선 통일의 쟁취 임무는 최대 역량의 집중을 요구한

30) 1949년 9월 15일,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3, 목록65, 문서주지776, pp. 1~21.

다. ① 유격 운동을 전개하여 해방구를 세우고, 조선에서의 전민 기의를 준비하여 반동 정권을 넘어뜨리고 성공적인 조선 통일의 임무를 해결한다. ② 전력을 다하여 인민군을 강화한다.”<sup>31)</sup> 이 결의는 모스크바의 당시 방침을 분명히 표명한 것으로, 남조선 내부의 인민 혁명에 의거한 것이지, 북조선의 군사 수단을 이용한 한반도 통일은 아니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풀가닌, 커라미크 등이 기초한 또 다른 지시 문건 중으로 슈티코프가 김일성을 환기시켰던, “그들은 평화적으로 국가 통일의 모든 가능성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았다. 예컨대 조국 전선과 같이 평화적 통일 국가 선언에 관련된 중요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유리했던 문건”<sup>32)</sup> 등이다. 이것은 소련 지도자가 완전한 전략에서 출발하여 이 기간 동안 주로 고려한 점은 평화적인 조선 문제의 해결이었다는 것이다.

김일성 등 조선 지도자들은 역지로 모스크바의 의견을 접수하였지만,<sup>33)</sup> 군사 행동 계획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다. 10월 14일, 38선 부근에서 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3경비여가 38선 이북 1.5km 법음산(法音山) 고지에 침입한 남조선 군대에 대해 공격을 전개하고 2개 고지를 점령하였다. 소련 대사와 군사 고문이 사전에 토론에 참여하여 이번 군사 행동을 묵인하고 지지를 보냈으며, 사후에 모스크바에 보고하지 않자 스탈린은 이에 대해 심한 불만을 보였다. 커라미크는 “엄격하고 견강하게” “중앙의 허락 없이 북조선 정부에 남조선에 대한 적극적 행동 건의를 금지”하도록 한 지시와 “중앙이 38선 형세의 복잡화를 방지 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슈티코프를 엄중히 질책하고 그에게 경고를 하였다.<sup>34)</sup>

31) 1949년 9월 24일, 소련연방공화국 중앙정치국회의 제71호 기록 발췌문, 러시아대통령령 문서국, 전주지3, 목록65, 문서주지776, pp. 30~32.

32) 1949년 9월 23일, 몰로토프가 보고한 “소련 주재 조선 대사에게 지시한 초안(四)”, 러시아대통령령문서국, 전주지3, 목록65, 문서주지776, pp. 33~38.

33) 1949년 10월 4일,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문, SD00251.

동시에 스탈린은 모택동과 조선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들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출발하였지만, 모두 북조선이 이 시기에 공격적 군사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모택동이 보낸 전문에는 조선 동지들은 무력을 통해 남조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중국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하였다고 한다. 스탈린의 회답 전문에는 중국 동지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조선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아야 하고 군사 수단을 이용한 조선 통일은 불가하며, 현재 북조선은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남조선에 유격대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35)</sup>

현재 파악된 러시아 당안 문건에는, 1949년 말까지 스탈린은 모두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 행동을 채택하지 않는 정책으로, 극동 지역에서 미소의 직접적인 군사 대치를 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50년 초, 모택동의 방소와 중소 동맹 조약이 체결되자,<sup>36)</sup> 중국 동북을 기초로 하는 정치와 경제 이권은 스탈린의 소련에 대해 전후 극동 지역 전략 목표를 실현하고 한반도 정책을 바꾸도록 하였다. 즉 반드시 한반도 전체를 소련의 세력 범위로 해야 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 미국 대통령 트루먼과 국무장관 애치슨이 발표한, 남조선이 미국 방어 범위에서 제외된 연설은 소련으로 하여금 대조선 정책을 바꾸는 조건을 만들어주었다.<sup>37)</sup>

34) 1949년 10월 26일, 그로미코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보문, SD00252 ; 1949년 10월 31일, 슈티코프가 그로미코에게 보낸 전보문, SD00253 ; 1949년 11월 20일, 그로미코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보문, SD00254.

35) 필자가 1996년 7월 31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의 安德烈·列多夫斯基 교수를 방문한 기록에서 인용함. 列多夫斯基 교수는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국에서 1949년 10월 중순에 모택동과 스탈린이 왕래한 두 편의 전보문을 읽었다고 한다. 비록 그가 필자에게 문서 진품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 두 편의 서류를 직접 보았다는 것을 담보하였다.

36) 중소 조약 답판에 관한 최신 자료는 沈志华, “中苏友好同盟好邻条约”의签订: 愿望和结果”, 『中共当研究』, 第2~3期(1998)에서 전재함.

37) 이 관점에 관한 자세한 논술은 필자가 “冷战与中苏关系”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

## 2. 소련의 참여 계획과 한국전쟁의 발동

모택동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기간 스탈린은 근본적으로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을 바꾸었다.

1950년 1월 19일, 스탈린은 중국과 합의하여 신조약을 체결<sup>38)</sup>하고, 모스크바는 슈티코프가 보내온 보고를 받았다. 1월 17일, 조선 외무성은 조선 대사 이주연(李周淵)을 중화인민공화국에 보내는 환송연으로 한 차례 소범위의 오찬을 거행하였다. 연회가 끝나자 김일성은 소련 대사관 참찬 이커나지예프, 페리신커와 격렬한 대화를 나누었다. 중국의 해방 사업이 완성된 후 다음 문제는 현재 어떻게 조국 남쪽의 인민을 해방시키느냐이다. 그는 “조선 남쪽의 인민은 나를 신임하고 우리의 무장 능력을 기대한다. 유격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남쪽 인민은 우리에게 우수한 부대가 있음을 안다. 최근 나는 잠 못 이루면서 통일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만약 조선 남쪽 인민의 해방과 조국 통일의 사업을 지연한다면 나는 조선 인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김일성은 또 말하기를, 모스크바에 있었을 때 스탈린 동지가 반드시 남쪽을 공격할 필요가 없으며 이승만의 군대가 북쪽을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남조선에 대해 반격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조국 남쪽 인민의 해방과 국가 통일의 지연을 의미하므로, 재차 스탈린을 만나, 인민해방군의 남조선 인민 해방과 공격 문제에 대한 지시와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김일성은 슈티코프에게 “스탈린과 회동하여 남쪽의

---

(북경: 1997)에서 제출한 논문, “中苏条约与苏联在远东的战略目标”를 참조(본 논문은 『党史研究资料』, 第9期(1997)에 발표됨).

38) 스탈린이 할 수 없이 ‘中蘇新條約’에 조인한 것은 소련이 중국의 장춘 철도와 여순·대련항에 대한 독점 권리를 상실한다는 것을 예시한 것이다. 비록 구체적인 담판은 흥정의 과정을 거쳤지만 말이다.

형세와 이승만 군대에 대한 공격 문제를 토론하기를” 희망하였다. 김일성은 만약 스탈린과 회동하지 못하면 모택동을 찾으려 했다고 한다. 김일성은 슈티코프에게 “현재 인민군은 이승만군보다 강하고 많다”, “왜 웅진 반도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지 않는가? 인민군은 3일 내에 웅진 반도를 탈환할 수 있으며 인민군이 전면적인 공격을 한다면 며칠 만에 서울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슈티코프의 보고록에는 김일성은 취기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만 “그의 이 말은 우연한 것이 아니며 미리 생각한 것이다. 목적은 그의 생각을 전달해서 우리의 태도를 시험해 보려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화중에, 여러 차례 비판을 받은 슈티코프는 소련공산당 중앙정치국 9월 24일 회의 결의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김일성에게 답하였다.<sup>39)</sup> 놀랄 만한 일은 스탈린이 이 보고를 듣고 태도를 바꾸었다는 것이다.

1월 30일, 스탈린은 모택동과 제3차 회담을 진행하면서 중소 신조약의 기본 원칙을 확정하고 친히 회담 전문을 보내, “나는 김일성 동지의 불만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가 이해해야 할 것은, 남조선에 대해 이처럼 중대한 행동을 생각하고 있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번 일은 커다란 위험을 범해서는 안 된다. 만약 나와 이 일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일을 김일성에게 전해주고 이번 일은 내가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라”고 하고 있다.<sup>40)</sup> 지금까지 본 당안 문헌 속에서 처음으로 스탈린은 조선 문제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날 슈티코프는 보고에서 “당신의 지시에 따라 1월 30일 김일성 동지를 만났다. 1월 17일에 박헌영의 오찬을 거행하면서 나는 분명히 당

39) 1950년 1월 19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정책문서국, 전주지 059a, 목록5a, 문서주지3, 권주지11, pp. 87~91.

40) 1950년 1월 30일, 스탈린이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정책문서국, 전주지059a, 목록5a, 문서주지3, 권주지11, p. 92.

신이 지시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김일성은 매우 만족하게 나의 보고를 들었다. 당신이 접견에 동의했고 또 원조 제공을 준비한다는 데 그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하다. 분명하게, 김일성은 명확히 하기 위해 다시 나에게 이 문제로 스탈린 동지를 만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나는 통지에 따라 스탈린 동지는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라고 하였다. 김일성은 즉각 언제든지 스탈린 동지 접견 준비를 하겠다고 표명했다.<sup>41)</sup>

그 후 김일성은 3개 보병사를 만들어 군대 총수를 10개 사로 증가시킬 것을 제안했고, 3개 보병사의 소련 장비 구매를 위해 소련 정부가 1951년에 제공할 차관을 1950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모스크바는 즉각 김일성의 요구를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답변을 하였다.<sup>42)</sup> 동시에 조선인민군의 조직과 지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스크바는 바실리에프 중장을 조선인민군 군사 총고문으로 임명하여 소련이 조선에서 철수한 후 이 직무를 겸임하던 소련 대사 슈티코프를 대체하였다.<sup>43)</sup> 이후 소련은 대규모로 조선에 무기 장비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3월 9일, 조선은 소련에 “인민군에게 장비, 탄약과 기술 기재를 보충하고 인민군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에 소련 정부에 제출했던 조선에 제공하려는 1억 2천만~1억 3천만 루블의 군사 기술 장비 신청 목록을 소련 정부에 요구하는” 조회를 하였다. 조선은 이에 상응하여 소련에 1억 3,300만 루블 가치의 황금, 백은, 몰리브덴광 제공을 보장하였다. 그 후 김일성은 무기 장비에 필요한 상세한 목록을 작성하였고,<sup>44)</sup> 모스크바는 1951년 차관을 무기 장비

41) 1950년 1월 31일,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정책문서국, 전주지059a, 목록5a, 문서주지3, 권주지11, p. 93.

42) 1950년 2월 7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비신스키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보문,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46, 권주지11, pp. 74~76.

43) 1950년 2월 23일, 슈티코프가 바실리에프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정책문서국, 전주지059a, 목록5a, 문서주지4, 권주지11, p. 148.

44) 1950년 3월 9일, 3월 16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정책문서국, 전주지059a, 목록5a, 문서주지4, 권주지11, pp. 149~150;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



구매에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다. 스탈린은 친히 김일성에게 전보를 쳐 “조선인민군에 필요한 장비, 탄약과 기술 기제”에 대해 소련 정부가 “당신의 요구에 완전히 만족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였다.<sup>45)</sup>

물질 준비를 진행하는 동시에 3월 20일, 김일성은 4월 초에 모스크바를 비밀리에 방문하여 스탈린과의 “국가 남북 통일의 길과 방법” 및 “경제 발전의 전망” 등 문제에 대한 제안과 토론을 요구하였다. “김일성이 스탈린 동지에 해결을 바라는 문제”라는 문건에는 명확히 “통일 국가(남쪽과 북쪽)의 길과 방법에 관해 무장 방식을 채택해 통일을 한다”고 써어져 있으며, 아울러 모택동과 만나 중국과 함께 조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제안하고 있다.<sup>46)</sup> 모스크바의 동의를 얻자 3월 24일, 슈티코프는 김일성의 모스크바행을 위한 구체적 안배를 하였다고 보고했다. 3월 29일, 비신스키는 스탈린에게 “김일성은 조선 외무상 박헌영과 함께 3월 30일 평양을 떠나 모스크바로 향했으며, 조선 주재 소련 대사 슈티코프가 수행 방문하며, 4월 8일 모스크바에 도착할 것”이라고 보고했다.<sup>47)</sup>

스탈린과 김일성의 비밀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현재 러시아 당안 속에서 어떤 관련 문헌도 찾을 수 없으며, 연구 논저 속의 견해로

45, 목록1, 문서주지346, pp. 133~140.

45) 1950년 3월 12일, 비신스키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보문; 1950년 3월 18일, 스탈린이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46, pp. 141~142.

46) 1950년 3월 21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정책문서국, 전주지 059a, 목록5a, 문서주지3, 권주지11, pp. 94~95. 서류 원서에 ‘명세서’라고 첨부된 것은 필기 초안을 위한 것임. 서명도 없고, 날짜도 밝히지 않음. 내용에 의해 판단컨대, 본 서류는 슈티코프의 전보문 부록인 것 같다.

47) 1950년 3월 24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정책문서국, 전주지 059a, 목록5a, 문서주지3, 권주지11, pp. 96~97; 1950년 3월 29일, 비신스키가 스탈린에게 제출한 보고서, 威瑟斯比(K. Weathersby), “苏联在朝鲜战争初期的作用”, p. 441. 沃亞科格諾夫는 “김일성이 그 이전에, 즉 1950년 2월 모스크바를 방문 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金澈凡編, 『朝鮮战争揭秘: 40年候的证据』(서울: 1990, 영문판), 3, 8쪽을 참조). 러시아 문서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은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나타나지만 인용한 것은 모두 당사자들의 회상이다.<sup>48)</sup> 그러나 1966년 8월 9일 소련 외교부가 바리예프 등 지도층에 보낸 『한국전쟁에 관한 배경 보고』에는 스탈린이 “조선인이 만든 방안의 최종 인가는 1950년 3월에서 4월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기간”에 승인하였다고 한다.<sup>49)</sup> 그래서 1950년 1월에서 4월 사이 스탈린은 한반도 정책에 대한 변경, 즉 군사 수단을 사용한 조선 통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결정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다.

그러나 스탈린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 채택은 모택동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 얼마 전에 유소기의 방소 기간에 스탈린은 국제 혁명 운동에서 중소 양국은 모두 의무를 가져야 하고, 모종의 분담을 해야 하며, 중국은 앞으로 식민지·반식민지 부속 국가의 민족 민주 혁명 운동 방면의 도움을 부담하기를 희망한다고 건의했다. 스탈린은 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서거한 이후 혁명 중심은 서방에서 동방으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또 중국과 동아시아로 옮겨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공은 “동아시아 각국의 혁명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sup>50)</sup> 그러나 스탈린은 매우 분명하게 중공은 현재 군사 전략 중심이 대만을 해방시키는 데 있다고 하였고,<sup>51)</sup> 모택동의 방소 전야에 그 스스로 “북조선은 이

48) 威瑟斯比, “苏联在朝鲜战争初期的作用”, p. 433 참조; 金澈凡編, 『朝鮮战争揭秘: 40年候的證據』, 105~106쪽 참조.

49) 1966년 8월 9일, 蘇聯 外交部 “关于朝鲜战争的背景报告”, 러시아 당대 문서 보관 중심, 전주지5, 목록58, 문서주지266, pp. 122~131. 威瑟斯比, “苏联在朝鲜战争初期的作用”, p. 441에서 발췌. 이 보고서의 중문 번역은 『朝鮮戰爭揭密』 부록을 참조.

50) 1949년 7월 27일, 유소기가 중공중앙 서기처에 보낸 전보문을 참조; 節哲, 『在历史巨人身边』(中央文献出版社, 1991), p. 412; 柯瓦僚夫, “斯大林与毛泽东的对话”, 『极东问题』, 第1~3期(1992), pp. 78~79.

51) 유소기의 방소 기간 모택동은 일부러 유소기더러 스탈린에게 중공이 대만을 해방하고자 하는 계획을 전달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소련에 원조를 요청했다. 비록 스탈린으로부터 중공의 요구가 거절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모택동은 스탈린과의 첫 모스크바 회견에서 다시 완곡하게 이 요구를 제기하였다. 1949년 7월 25일 유소기가 스탈린

시기 공격적 군사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모택동에게 지지를 표시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탈린은 당연히 직접 모택동에게 이 문제를 제안하는 것이 불편했다.<sup>52)</sup> 그래서 스탈린은 김일성을 사주하여 군사 행동 전에 모택동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sup>53)</sup>

사실 조선이 처한 정치적 위치에서 김일성은 동아시아 지역의 이런 중대한 조치에 반드시 스탈린보다 더 모택동의 지지를 얻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스탈린이 이미 찬성을 표한 상황에서, 김일성은 주중 조선 대사 이주연에게 모택동을 방문하라고 지시하였고, 김일성의 방중 요구를 제출했다. 3월 말, 모택동은 이주연과 회견할 때, 김일성의 방중에 동의를 하였고 아울러 “만약 조선 통일의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만나서 비밀리에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모택동은 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조선은 참전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군사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했다.<sup>54)</sup> 동아시아 지역 혁명 사업의 ‘책임자’로서 모택동은 원칙적으로 당

---

에게 전달한 모택동의 전보문을 참조,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 328, pp. 137~140; 『极东问题』, 第5期(1996), pp. 89~90에서 인용함; 柯瓦僚夫, “斯大林与毛泽东的对话”, 『极东问题』, 第6期(1991), p. 88; 1949년 12월 16일, 모택동과 스탈린의 회담 기록,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29, pp. 9~17.

- 52) 5월 3일, 스탈린은 모택동에게 다음과 같은 통지를 하였다: “조선 동지들이 우리한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회담 결과를 오늘 내로 당신에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1950년 5월 3일, 스탈린이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1, p. 54. 사실상 스탈린은 나중에 통보를 해주지 않았다.
- 53) 스탈린과 김일성의 회담 상황은 金澈凡編, 『朝鮮战争揭秘: 40年候的证据』, pp. 105~106 참조.
- 54) 1950년 4월 10일, 이그나티예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정책문서국, 전주지059a, 목록5a, 문서주지4, 권주지11, pp. 98~99. 이주연이 회담의 상황을 평양에 보고했을 때, 김일성은 이미 모스크바로 떠났다. 그래서 조선 내각 부수상 김책(金策)은 소련 대사관에 이 소식을 김일성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통보에서는 조선에서 진공을 발동할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일성은 5월 12일자 슈티코프와의 회담에서, 모택동이 이주연을 회견했을 때 “평화의 방식으로는 조선을 통일할 수 없고, 오직 무력으로만이 조선을 통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알려주었다. 1950년 3월 24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정책문서국, 전주지059a, 목록

연히 조선의 일체 혁명 행동을 지지했지만, 모택동은 김일성과 스탈린과의 목계를 알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sup>55)</sup> 김일성은 반드시 모택동의 명확한 태도를 얻어야 했으므로 5월 13일 비밀 방중을 결정했다. 모택동은 김일성이 북경에 도착한 날 저녁에 바로 그와 회견하였다. 회담 중에는 “조선 동지는 필리포프 동지의 아래와 같은 지시를 통지했다. 현재의 형세는 과거와 같지 않다. 북조선은 행동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중국 동지와 모택동 동지 본인과 함께 토론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날 밤 11시 30분, 주은래는 소련 대사관을 방문하여 모택동의 요구를 전달하고, “빌리포프 동지 본인의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의 신속한 답신을 요구했다.<sup>56)</sup>

둘째 날, 스탈린의 회담에는 “조선 동지와의 회담 중에 빌리포프와 그의 친구들은 국제 형세가 이미 바뀐 상황에서 조선인의 통일 실현에 관한 건의에 동의했다. 동시에 덧붙인다면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중국과 조선 동지의 공동 해결을 통해야 하며, 중국 동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시

---

5a, 문서주지4, 권주지11, pp. 100~103. 전후 사태의 발전에서 알 수 있듯이, 김일성의 이와 같은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기 위하여, 그가 군사 행동을 취하는 데 중공이 지지한다고 거듭 언급하였다. 이 문제에 관한 모택동의 태도는 소련 대사관측과 조선측에서 모스크바에 보고한 결과가 현저히 다르다. 이러한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다. 1949년 5월, 김일(金一)은 중공 지도자와의 회담에서 소련연방공화국 주재 중공 대표 호발레프가 보고하기를, 중공은 남조선의 진공에 대하여 반격을 가할 것을 지지하지만, 조선측에서 주동적으로 진공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이 모스크바에 통보한 내용을 보면, 이후의 전쟁에서 중공이 조선에 원조를 할 것이라고 모호하게 말하였다. 1949년 5월 15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SD00231 ; 1949년 5월 18일, 호발레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문, SD00232.

55) 모택동과 스탈린의 모스크바 회담에서는 조선에서 군사 행동을 취할 데 관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스탈린도 김일성의 계획을 모택동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毛泽东·斯大林与朝战』, pp. 217~218 참조.

56) 1950년 5월 13일, 로신이 모스크바에 보낸 전보문, SD00278. 필리포프는 스탈린의 대칭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해야 한다. 회담의 상세한 내용은 조선 동지가 당신에게 얘기할 것”이라고 하였다.<sup>57)</sup> 모스크바가 이미 분명한 태도를 보였으므로, 모택동은 단지 대만 해방 전쟁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 조선의 통일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동의하고, 조선의 행동을 지원하는 뜻을 표시하였다.<sup>58)</sup>

이로부터 한국전쟁으로 향한 길은 김일성이 말하는 대로 뚫려 막힐 것이 없었고 필요한 것은 단지 구체적 작전 계획을 확인하고 실행하는 것이었다.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부장 유성철(俞成哲)의 회상에 따르면, 5월 상순 소련은 조선인민군 속에 소련 군사 고문을 대량 배치했다. 작전 전문가 개인 명의로 조선의 군사 훈련을 담당하는 군인을 교체한 것이다. 아울러 조선 군대를 위해 “기선을 제압하는 공격 작전 계획”을 제정하였다.<sup>59)</sup> 5월 말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와 소련 군사 고문단은 연합으로 모스크바에 38선에 집결된 조선인민군의 행동은 이미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김일성의 견지하에 군사 행동 개시 시점은 1950년 6월 25일로 확정되었다. 이어서 모스크바는 또 진공 계획에 따라 조선인민군은 매일 15~20km를 진출할 수 있으며 주요 군사 행동은 22~27일 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접하였다.<sup>60)</sup> 슈티코프의 보고에 따르면, “38선 지역의 인민군 집결은 6월 12일에 시작되어 6월 23일에 끝났다. 모두 총참모부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각 부대의 배치 조직은 엄밀했으며, 의외의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설사 “적군의 정찰이 각 부대의 배치 상황을

57) 1950년 5월 14일, 스탈린이 모택동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1, p. 554.

58) 5월 14~16일자 모택동과 김일성의 회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朝鮮戰爭揭密』, pp. 284~288 참조.

59) 남조선을 진공할 군사 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상이한 논법은 『朝鮮戰爭揭密』, pp. 167~171 참조.

60) 1950년 제408호와 468호 전보문에 관해서는, 1966년 8월 9일자 蘇聯 外交部의 “關於朝鮮戰爭的背景報告”를 참조.

발견했다 할지라도 각 부대의 계획 및 행동 개시 시간은 모두 엄격히 비밀이 유지되었다.” 보고서에는 특별히 “각 사의 작전 계획 제정 및 지형 정찰 과정은 모두 소련 고문이 참가했다”고 언급하고 있다.<sup>61)</sup>

6월 25일, 북조선 군대는 계획대로 대거 38선을 넘어 남쪽을 향해 공격을 감행하였다. 슈티코프의 보고는 전쟁 시작 단계의 진실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전투의 모든 준비 조치는 이미 6월 24일에 완성되었다. 6월 24일 이미 각 사 사장에게 “ㄷ”(디데이)와 “ㄴ”(에치아위)의 명령이 내려졌다.

각 부대는 모두 민족보위성의 정치 명령을 낭독하였고, 그 중 남조선 군대가 38선을 침범하여 군사 공격을 일으켰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인민군에 반격에 관한 명령을 발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장교 사병은 고양된 열정으로 반격에 관한 명령을 들었다.

각 부대는 6월 24일 24시에 출발 위치에 진입하였다. 군사 행동은 현지 시간(25일) 4시 40분에 시작했다. 진공 전의 포화 준비는 20~40분간 진행하였고, 그 중에는 지정 조준과 10분 포격을 포함한다. 그 후 보병이 행동을 개시하였고 신속히 공격을 전개하였다. 개시 3시간 후 개별 부대와 군단이 3 내지 5km 정도 전진하였다.

인민군 부대의 공격은 완전히 적군의 예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적군은 단지 웅진, 개성과 서울 제 방향에서 완강한 저항을 했을 뿐이다. 비교적 조직적인 저항은 첫날 12시간이 지난 후 비로소 시작되었다.

전투 첫날 점령한 도시는 웅진(웅진 반도), 개성, 송우리(松隅里) (지도 1 : 100 만, 1943 총참모부 인쇄)이다.

춘천 방향에서는 인민군 부대가 12km를 전진하였다.

동부 해안에서는 8km를 전진하였다.

---

61) 1950년 6월 26일, 슈티코프가 자하로프에게 보낸 전보문, SD02931.

첫째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은 두 갈래의 상륙 부대를 동해 연안에서 상륙시켰다. 첫번째 상륙 부대는 강릉 지역으로 2개 영의 해군 상륙 부대와 약 1,000여 명의 유격대원을 포함한다. 두번째 상륙 부대는 울진 지역에서 600명의 유격대원을 포함하고 있다.

상륙 부대는 6월 25일 5시에 상륙하여 전 과정이 순조로웠다.

유격대 상륙 부대는 울진시 및 그 주위의 약간의 농촌을 점령하였다.

상륙 부대가 상륙하는 과정 중에 인민군 군함과 남조선 함정 간에 전투가 발생하였다. 전투 결과는 남측 소외함이 격침되었고 다른 소외함은 훼손당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은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

6월 26일 인민군 부대는 계속 진공하여 전투 속에서 부단히 남조선 영토에 중형으로 진입하였다.

6월 26일 하루 동안(우에서 좌로) 철저히 울진 반도, 개성 반도를 소탕하였다. 제6사의 부대는 김포만을 간신히 건너 김포 비행장 방향의 거주 지역을 점령하였다.

서울 방면에는 제1, 4사가 문산, 동두천 등 도시를 점령하였고, 제2사는 도청 소재지 춘천시를 점령하였다.

동해 연안 일대는 부대의 진입이 계속되었다. 주문진항을 이미 점령했다.

홍천 방향으로 이동한 제12보병사, 송우리를 넘어 의정부 방향으로 진공한 제3보병사 및 기계화 여단은 하루 종일 연계하지 않았다.<sup>62)</sup>

이상의 상황은 소련이 남조선 공격 군사 행동의 모든 계획, 준비, 실시

---

62) 1950년 6월 26일, 슈티코프가 자하로프에게 보낸 전보문, SD02931. 군사상에서 4는 전쟁 개시일을 대신하는 부호이고, 4는 군사 행동을 발기하는 날짜를 대신하는 부호이다. 소위 남조선이 “38선을 침범했다”는 설은 분명히 북조선에서 날조한 가짜 정보였다. 6월 20일, 그로미코는 북조선에서 제공해 준 소위 남조선 군대가 진공 태세를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스탈린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그는 슈티코프가 이 사건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950년 6월 20일, 그로미코가 스탈린에게 올린 보고서, SD05249.

과정에 참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미국의 간섭과 세계 여론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 스탈린은 비교적 은폐된 조치를 취하였다. 전쟁 발발 5일 전의 슈티코프의 보고에는, 김일성이 소련에 공격과 상륙에 필요한 함정과 함정을 운전하는 10명의 소련 고문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였다. 스탈린은 거절하는 회답을 보내어 미국 간섭의 빌미 제공을 피하였다.<sup>63)</sup> 공격이 시작되자 스탈린은 조선인민군 전방 부대 속의 소련 고문을 소환하도록 명령하였다고 한다. 당시 샤루요프가 이유를 묻자 스탈린은 “우리가 이 사건에 참여하고 있다는 질책받을 만한 증거를 남길 생각이 없다”고 회답하였다.<sup>64)</sup>

스탈린의 생각은 매우 명확했다. 소련의 안전 전략에서 출발하여 모스크바는 이 전쟁의 지휘권과 주도권을 장악해야 했고, 또 전쟁에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기에 중국이 나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전쟁 계획시에 모스크바는 평양에 북경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했고, 전쟁의 형세가 역전되자 스탈린은 중국의 조선 출병을 권하려고 생각하였다.

### 3. 스탈린은 책임을 모택동에게 떠넘겼다

조선인민군이 38선을 월경한 행동은 공산 국가의 세계를 향한 공격의 서막으로 비쳐졌고, 심지어는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보여지자 미국

63) 沃亞科格諾夫, “我们该惧怕吗?”, p. 29.

64) 金澈凡編, 『朝鮮战争揭秘: 40年候的證據』, pp. 25~26; 『赫魯曉夫回憶錄』(東方出版社, 1988, 중문 번역본), p. 534. 슈티코프의 6월 26일자 전보문은 소련 고문의 철퇴로 인해서 38선을 넘어선 인민군들은 통신 연락과 조직적인 지휘 면에서 혼란된 국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반응을 하였다.<sup>65)</sup> 미국의 간여는 스탈린에게는 의외였으며, 전쟁 진행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7월 1일, 미국 국회가 한국전쟁에 전면 개입을 비준한 3일째에 스탈린은 급박하게 슈티코프에게 전문을 띄워 물었다. ‘조선 지도층’이 미국 공군의 습격으로 놀라지 않았는가? “잠시 전진을 멈출 것인가?” 스탈린은 “우리는 반드시 단호하게 계속 진공한다. 남조선 해방이 빠를수록 무장 간섭의 기회도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조선 정부는 “습격과 무장 간섭”에 대해 공개 항의를 해야 했다. 스탈린은 슈티코프를 통해 김일성에게 소련은 “7월 10일 전에 조선인이 만족할 만한 탄약과 기타 군수품의 신청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통지했다.<sup>66)</sup>

7월 2일과 4일, 모스크바는 슈티코프의 보고를 받았다. 서울이 해방되면서 보편적으로 고양된 정치 열정이 출현하였으나 미국 참전은, 특히 미국 비행기의 공습은 사람들의 정서에 영향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승리에 회의를 갖게 되었다. 일부 조선 지도층은 미국과의 작전이 어렵다고 인식하여 소련의 견해를 듣고 싶어한다고 적혀 있었다. 대량의 군사 원조를 요구하는 외에 슈티코프는 스탈린에게 조선인민군 각 방면마다 2명의 소련 군사 고문을 파견하고 군사 총고문 바시리예프 군관을 전선 사령부와 함께 서울에 보내어 사령부 상주를 비준하도록 요구했다.<sup>67)</sup> 스탈린의 7월 6일 전보에는, 인민군에 대한 무기 원조 요구는 만족시켰으나, 조선 전방 군대에 군사 고문 파견 요구에 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군사 총고문

65)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 과정에 대한 분석은 “美国是如何卷入朝鲜战争的?”, 『世界历史』, 第3期(1995)를 참조하였음.

66) 1950년 7월 1일, 편시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46, p. 104. 편시는 스탈린의 별칭이다.

67) 1950년 7월 1일, 슈티코프가 편시에게 보낸 전보문; 1950년 7월 4일, 슈티코프가 편시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46, pp. 105~107, pp. 136~139.

바시리에프의 현지 주재”에 관해서는, 전문에서 “그가 평양에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다.<sup>68)</sup>

슈티코프는 모스크바의 답변을 얻지 못하자 다시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보내는 친필 서신을 전하였다. 김일성은 간절하게, “당신이 조선 인민을 도와 미 제국주의에 반대하기를 기대한다. 삼가 바라는 것은, 조선 전선 사령부와 2개 방면 군령부에서 사용할 25~35명의 소련 군사 고문을 허락해 달라. 우리 군사 간부는 현대식 군대를 지휘 장악할 기술이 충분치 못하다”고 요구했다.<sup>69)</sup> 이에 대해 스탈린은 회피할 수가 없었다. 다만 슈티코프의 이런 행동에 불만이었다. 스탈린의 회신 전문에는 슈티코프가 지시 없이 “조선에 고문 파견 허락”이라는 견해를 내비치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당신은 조선 대표가 아니며 소련 대표임을 분명히 하라”고 엄히 질타했다. 그러나 김일성이 직접 제출한 요구로 볼 때 형세가 긴박하자 스탈린은 조선의 요구에 동의했다. 하지만 스탈린은 매우 신중했다. 즉 고문은 단지 “『真理報』 기자”이지 군인 파견은 아니며, “전선 사령부에 파견하는 것이지 전투 부대는 아니”라는 점이다. 스탈린은 슈티코프에게 특별히 “당신 개인은 소련 정부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sup>70)</sup>

이와 동시에 미군이 간섭하는 상황에서 모스크바는 중국이라는 맹우를 이용하여 난국을 벗어나려고 생각하였다. 7월 2일, 로신이 명을 받고 주은래와 회담했다. 주은래는 당연히 스탈린이 로신을 통해 중국의 태도를 탐문하려는 것을 알았다. 대담 중에서 주은래는 북조선이 미국의 군사 간섭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고, 모택동이 1949년과 1950년 5월에 제안한 경

68) 1950년 7월 6일, 편사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46, p. 140.

69) 1950년 7월 8일, 슈티코프가 편사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46, pp. 143~144.

70) 沃亞科格諾夫, “对此应该惧怕吗?”, p. 29에서 인용함.

고를 소홀히 한 것이 못마땅했다. 주은래는 북조선에 대한 모택동의 경고를 전달했다. 미국의 인천 상륙 가능성으로 인천 후방에 강력한 방어선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회담중에 주은래는 중국의 3개 군 총 12만 명이 이미 심양 지역에 집결했다고 말하였다. 주은래는 또 미국이 38선을 넘으면 중국군은 조선인으로 위장하여 저항한다고 확인했으며, 소련 공군이 이 부대를 위해 엄호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sup>71)</sup> 중국 지도층은 조선 군사 행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시간표를 전혀 알지 못했기에 전쟁의 갑작스런 발발에 대해 의외로 생각했으며, 또한 사상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준비가 부족했다. 단지 미국 지상 부대가 전쟁에 개입하자 중국은 비로소 상응하는 군사 배치를 고려하였다.<sup>72)</sup> 따라서 주은래의 3개 군의 집결 의도는 어느 정도 스탈린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73)</sup> 그 주목적은 소련의 공군 엄호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이에 대해 오히려 매우 적극적이었다. 바로 로신에게 전문을 보내 주은래에게 전하도록 하였다. “즉각 9개 중국 사를 중조 국경에 집결시켜 적이 38선을 넘으면 지원군이 북조선 작전에 진입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또 마지막으로 “전력으로 이 부대에 대해 공중 엄호를 하겠다”고 답했다.<sup>74)</sup> 중국의 빠른 실행을 재촉하기 위해 7월 8일, 스탈린은 불만스럽게 로신에게 “조선에 중국의 대표가 없음을 못마땅해한

71) 巴讓諾夫, “对朝鮮政策的分析”, pp. 88~89.

72) 필자가 ‘冷戰在亞洲’ 국제 심포지엄에서 제출한 논문, “中国出兵朝鮮的决策过程”을 자세히 참조. 이 논문은 『党史研究資料』第1期(1996)에 실려 있음.

73) 사실상 당시 중국은 아직 군사부서 조정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7월 7일과 10일, 모택동의 제의에 의하여 중앙 군위에서 개최한 제1차 국방보위 회의에서야 “동북 변방 보위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4개 군, 3개 포병사, 3개 공군단 모두 25만 5,000명으로 조직된 동북 변방군을 뽑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일은 8월 5일로 제한하여 동북에서 집결하기로 되어 있었다. 『建国以来毛泽东文稿』, 第1册(中央文献出版社, 1987), p. 428; 力平, 『开国总理周恩来』(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94), p. 247.

74) 1950년 7월 5일, 필리포프가 로신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1, p. 79.

다고 모택동에게 전하라. 신속히 대표를 파견해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연히 모택동이 조선과의 연계를 필요로 한다면 말이다”라고 지시했다.<sup>75)</sup> 7월 13일 스탈린은 다시 로신에게 주은래 혹은 모택동을 재촉하여 중국이 “조선 변경에 9개 중국 사를 배치할 것을 결정했는가?” 하고 물었고, 만약 결정했다면 소련은 “제트 추격기(追擊機師) 124대를 보내어 이 부대를 엄호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의 설명은 소련 조종사가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2, 3개월 동안 소련 비행사의 도움으로 중국 조종사를 가르친 후에 모든 장비를 중국에 넘기겠다”는 것이었다.<sup>76)</sup>

7월 22일, 로신은 모택동이 이 문제의 답신으로 스탈린에게 보내는 전문을 전달했다. 그 속에는 “우리 군을 엄호하는 제트 요격기 부대는 심양 지역에 배치할 것이다. 그 중 2개 단은 안산(鞍山)에 두고, 1개 단은 요양(遼陽)에 배치한다. 이는 우리 안동 지역 혼성 항공병 여단의 각 추격 항공 병단의 배합하에 아군 및 심양, 안동, 무순(撫順) 공업 지역에 대한 엄호 임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고, 모택동은 또 소련에 1951년 3~4월 전에 “소련 2개 항공 병사의 모든 무기 장비를 접수하는 작업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sup>77)</sup> 모택동은 소련에 대해 단지 1개 공군사의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비행 기술에 익숙지 못한 중국 공군 조종에 불만을 갖고 스탈린에게 중국은 충분한 엄호가 필요하며, 조선 작전에 투입되는 부대는 더 많은 공군사가 필요하다고 암시하였다. 모택동의 암시에 대해 혹자는 스탈린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혹자는 일부러 회피했다고 말한다. 7월 25일, 비신스키는 로신에게 타전하여 간단하게

75) 1950년 7월 8일, 필리포프가 로신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1, p. 82.

76) 1950년 7월 13일, 필리포프가 로신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1, p. 85.

77) 1950년 7월 22일, 로신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보문, SD00295.

“페리포프의 동의를 거쳐 모택동 혹은 주은래에게 전하라. 우리는 중국이 제안한 중국 비행사의 제트 비행기 조종 훈련의 절차와 시간 안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sup>78)</sup>

전황의 발전은 중국 지도층에게 조선 출병의 충분한 준비를 하게 했다. 8월 5일, 모택동은 동북군구 사령관 겸 정치위원 고강(高崗)에게 전문을 보내 “변방군 각 부대는 현재 이미 집결했다. 8월 내에 작전 임무는 없을 것이다. 다만 9월 상순 작전에 대비하라”, “각 부대는 이번 달 안으로 일체의 준비 작업을 완수하고 출동 작전을 기다린다”고 지시했다. 8월 18일, 또 고강에게 보내는 전문에는, “변방군 훈련 완성 및 기타 준비 작업의 시간을 9월 말까지 연장한다. 독촉하여 9월 30일 이전에 일체의 준비 작업을 마치도록 하라”고 하였다. 형세가 날로 복잡해지자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중국은 또 대규모로 군사 전략 부서를 배치하였다. 모택동은 동북에 집결한 4개 군의 기초 위에 다시 8개 군의 증가를 고려하였다. 8월 25일, 주은래는 제47차 정무회의에서 한국전쟁은 “지연 가능성이 높다”, 조선 인민은 “장기적인 작전”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들을 지지하며”, “굳건히 그들을 도울 것이다”라고 언급했다.<sup>79)</sup> 그러나 중국 지도층은 이런 안배를 모스크바에 알리지 않고 다시 공군 원조 문제를 제출하였다. 8월 27일, 스탈린은 다시 주은래에게 전문을 보내 “소련 정부는 소련 군사 고문 파견, 방공(防空) 전문가와 공군 전문가의 화동과 동북군구에 보내는 요구에 대해 응답한다. 38명의 고문을 중국에 파견하며 그 중 10명은 방공 전문가이며 28명은 공군 전문가이다. 그 나머지 26명의 고문은 특별히 필요해서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작업이 파견된 38명의 고문을 마무리

78) 1950년 7월 25일, 필리포프가 로신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4, p. 90.

79) 『建国以来毛泽东文稿』, 第1册, p. 454, 469, 485; 中共中央文献研究室編, 『周恩来年谱(1949~1976)』, 上卷(中央文献出版社, 1997), pp. 68~70.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80)</sup> 공중 엄호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스탈린은 여전히 언급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조선 전황이 분명하지 않자 중국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 작전에 참여하는 것과 소련 공군을 파견하여 중국 작전 부대에서 공중 엄호를 제공하는 문제는 북경과 모스크바 사이에 쌍방 모두 일치된 의견이 없었다.

9월 15일, 미군이 성공적으로 인천에 상륙하자 조선의 전황은 급전 직하하였다. 9월 26일에 형세는 매우 엄중해졌다. 스탈린이 조선에 파견한 특사 마터비에프가 평양에서 보고하기를, “제공권을 장악한 공군의 지원으로 미국은 인민군의 전선과 후방에 무차별 폭격을 하여 수원에서 동과 동남 방향으로 25~30km 전진하였고, 대구 북쪽과 서북쪽에서는 부분 병력이 상주와 안동을 점령했다”, “적은 서울에서 집단군의 탱크 부대가 이미 성공적으로 청주 방향으로 진출하였고 제1방면군에 대한 포위를 하였다”, 인민군 부대는 “거의 모든 탱크와 많은 대포를 상실하여 어려운 방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대는 탄약과 연료가 부족하여 보충할 수 없다”, 모든 부대는 위에서 아래로 지휘 조직의 결함이 생겼다”, “통신 연락 또한 전혀 보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81)</sup> 스탈린은 초조 불안하고 크게 노하여 엄중히 조선 전선 지휘부와 소련 고문을 질책하는 외<sup>82)</sup>에는 속수무책이었다.<sup>83)</sup> 모스크바는 미국과의 접촉을 고려하였다. 그리하여 평화적으

---

80) 1950년 7월 29일, 필리포프가 科托夫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4, p. 94. 科托夫는 때로는 소련 주중 대사관 무관으로도 있었다.

81) 1950년 9월 26일, 마트베에프가 핀시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3, 목록65, 문서주지837, pp. 103~106.

82) 핀시가 마트베에프와 슈티코프에게 지시한 초안, 1950년 9월 27일 소련연방공화국 정치회의에서 통과됨.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3, 목록65, 문서주지827, pp. 91~93.

83) 스탈린은 조급한 나머지 바실리에프스키에게 최선을 다하여 조선인민군에게 공중 엄호를 제공하고, 평양 근처 지역에 방공 시설을 건립하라고 재촉하였다. 그러나 바실리에프스키가 스탈린에게 공전 지휘시 러시아어로 무선전통화를 해야 함으로 미국군은

로 조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9월 26일, 소련 상주 UN 안보리 대표 말리크의 동의를 거쳐, 부대표 차라푸진은 중간역인 랑카스터와 만났고, 랑카스터는 소련 대표와 미국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조선 문제 토론”을 할 수 있었다. 말리크는 즉각 이 상황을 모스크바에 알렸다. 소련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당일 “차라푸진이 랑카스터에게 통지하여 말리크는 랑카스터의 건의에 동의하여 애치슨의 조수 혹은 미국의 대사와 함께 만난 것”을 질책하고, “말리크는 국무성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했다. 만약 미국이 평화적으로 조선 문제를 해결한다는 분명한 진전이 있으면, 상명을 통해 회담중에 제출된 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만남에서 답변했어야 했다”고 결의했다.<sup>84)</sup>

실제 조선 전세의 악화가 중국에 미친 영향은 소련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이때 모택동은 조선 출병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였다. 9월 17일, 중앙군사위는 5인 선발 소조를 파견하고 시성문(柴成文)을 수행하여 조선에 들어가 상황을 숙지하고 지형을 조사하여 전쟁 준비를 하도록 결정하였다. 심양을 지나칠 때 시성문은 몸에 지니고 온 모택동의 서신을 고강에게 넘겨주었다. 서신에는 “출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써어 있었다.<sup>85)</sup> 9월 30일, 주은래의 연설에는 미국 정부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제출하고 있었다. 즉 “중국 인민은 결코 외국 침략을 용인하지 않으며, 또한 제국주의자가 자신의 이웃에 침략을 자행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

---

제1차 공전 후 즉시 소련 비행사가 평양 상공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였을 때, 스탈린은 그 주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曼紹洛夫, “斯大林, 毛宅东, 金日成与中国决定介入朝鲜战争”, pp. 95~96. 1950년 9월 21일, 9월 23일, 바실리에프스키가 스탈린에게 보낸 보고서,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3, 목록65, 문서주지827, pp. 79~80, pp. 81~82.

84) 1950년 9월 27일, 비신스키가 그로미코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3, 목록65, 문서주지827, pp. 86~87; 1950년 9월 27일 소련연방공화국 중앙정치국회의 제78호 기록,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3, 목록65, 문서주지827, pp. 79~82.

85) 柴成文·趙勇田, 『板门店谈判』(解放军出版社, 1989), p. 79.

는다”고 발표하였는데, 이 말의 후반부는 주은래가 원고 작성시 특별히 첨가한 것이다.<sup>86)</sup> 그 목적은 분명히 미국 정부가 중국의 한국전쟁 참여 가능성을 증시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백악관과 국방성은 이미 승리의 기쁨에 만취되어 있었으며, 맥아더는 순조롭게 38선으로 진군하여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었다. 모스크바도 똑같이 주은래의 말에 주의하지 않았다.

이때 김일성은 오히려 소련과 중국에 직접적인 군사 원조를 요구하였다. 9월 29일, 슈티코프는 김일성의 요구대로 회담을 하였다. 김일성은 전선의 위기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조선 노동당 정치국이 회의를 열어, 스탈린에게 소련 공군의 조선 원조 요구의 결의를 통과시켰다고 했다. 그들은 모택동에게도 구원을 암시하는 서신 발송을 결의하였다. 슈티코프는 김일성과 박헌영은 “초조 불안”하여 “현재의 형세에 대해 당황하고 있으며 신념이 약해진 듯하다”고 보고하였다. 김일성은 여전히 스탈린에게 보내는 편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물었지만 슈티코프는 이를 회피했다.<sup>87)</sup> 그날 저녁 스탈린에게 보내는 구원의 편지에서, 김일성과 박헌영은 “위험한 형세가 이미 나타났다”, 미 공군의 절대적 우세가 인민군 일체의 군사 행동을 파괴하고 있어 우리측 인원과 물자에 커다란 손실이 있다, 통신 연락은 두절되었고 수송이 끊어져 남방의 각 부대는 포위 고립되었으며 “서울의 함락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들은 “독립, 민주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싸우겠다”는 결심을 표시한 후 스탈린에게 “특별한 도움”을 “간구”했다. 즉 “적이 38선을 넘을 경우 소련의 직접적인 군사 원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다른 이유로 이

86) 力平, 『开国总理周恩来』, p. 249. 필자가 군사과학연구원의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 누군가 말하기를, 연설 본문에서 개정된 이 말은 모택동의 친필이라 하였다.

87) 1950년 9월 30일, 슈티코프가 그로미코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 45, 목록1, 문서주지347, pp. 46~49.



렇게 못한다면 중국과 기타 인민 민주 국가의 국제 지원 부대를 건립하여 우리의 투쟁을 위해 군사 원조를 해주도록 청한다”고 했다.<sup>88)</sup>

스탈린이 조선 요구에 대해 군사 원조를 하겠다는 회답은 그가 10월 1일 구원 전문을 받은 당일 평양과 북경에 보내는 두 개의 서신 전문에 보인다. 평양에 보내는 전문에서, 스탈린은 “바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적 38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38선 이북에서 적과 작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직접적 군사 원조의 책임에 대해서는, 스탈린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모택동에게 떠넘겼다. “무장 원조 요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수할 수 있는 형식은 인민지원군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중국 동지와 상의해야 한다”는 것이다.<sup>89)</sup> 북경에 보내는 전문에서 스탈린은 매우 겸손하지만 논의를 용납하지 않는 어조로 중국에 조선 출병 원조 요구를 제출했다. 스탈린은 먼저 “조선의 국세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 후에 중국 지도층에게 “현재 정세에 따라 조선에 부대를 원조할 수 있다면 아마 5, 6개 사가 좋을 것이다. 즉각 38선으로 전진하여 조선 동지가 당신들의 엄호하에 38선 이북에서 대비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한다. 중국 부대는 지원자 자격으로 드러낼 수 있지만 당연히 중국 지휘자가 통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탈린은 조선이 소련에 똑같은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한 상황을 모택동이 알기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최후에 다시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누설하지 않았다. 또 조선 동지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이 일을 알면 기뻐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치 않는다”고 보충하고 있다.<sup>90)</sup>

전쟁이 가장 위급한 상황에 이르자 조선 원조의 책임은 마침내 모택동

---

88) 1950년 9월 30일, 슈티코프가 그로미코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 45, 목록1, 문서전주지347, pp. 41~45.

89) 1950년 10월 1일, 편시가 슈티코프와 마트베에브에게 보낸 전보문, SD07346.

90) 1950년 10월 1일, 필리포프가 로신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47, pp. 97~98.

에게 떠넘겨졌다. 그러나 중국의 조선 출병은 매우 곤란한 지경에 있었다. 그래서 모택동은 조선 파병을 결심하고 심지어 스탈린에게 출병에 동의하는 회신을 기초하였지만, 10월 2일 오후 중남해 이년당(頤年堂)에서 열린 중앙서기처(中央書記處) 확대회의에서 중국 대다수 지도층은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만부득이 출병하지 않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했다.<sup>91)</sup> 이에 모택동은 이미 써버린 전문을 거두고 로신에게 다른 회신 전문을 주었다.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0년 10월 1일에 온 전문은 잘 받았다. 우리는 먼저 적이 38선 이북으로 진입했을 경우 몇 개 사의 지원군을 파견하여 북조선 조선 동지를 돕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중한 고려 끝에 현재는 이런 행동은 장차 매우 엄중한 결과가 조성될 것이라 생각한다.

첫째, 몇 개 사의 병력 파견으로 조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우리 부대 장비는 뒤떨어져 미국과의 작전에서 군사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적이 우리를 퇴각시킬 수 있다.

둘째, 최대의 가능성은 이것으로 미국과 중국의 공개적 충돌을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소련도 전쟁에 말려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매우 엄중하게 변화된다.

중공 중앙의 많은 동지들은 이에 대해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당연히 우리가 군대 원조를 않는다면 곤란한 지경에 처한 조선 동지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며 우리도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개 사를 출동하면 그 후 적이 되물고 오면 미국과 중국의 공개적 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면 우리의 평화 회복 계획은 완전히 흐트러지게 되어 국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만을 가질 것이다. (전쟁이 인민에게 가져다 주는 상처는

91) 沈志華, “中国出兵朝鮮的決策过程” 및 “毛澤东派兵入朝鮮战争的决心; 关于10月2日毛澤东給斯大林的電报的論爭”, 『国外中共党史研究』, 第2期(1996).

의술로 치료하기 어려우며 인민은 평화를 원한다.)

따라서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한번 참는 것이다. 잠시 출병하지 않고 동시에 적극적인 역량을 준비하면서 적과의 작전 시기를 장악하여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것이다.

잠시의 실패로 조선은 투쟁 방식을 유격전으로 바뀌어야 한다.

1차 당 중앙회의가 열리면 중앙 각 부문 책임자는 모두 출석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후 결정이 나지 않았으며 이는 우리의 첫번째 전문이다. 우리는 당신과 상의하기 바란다. 당신이 동의하면 우리는 즉각 주은래와 임포 동지를 당신 휴양지로 보내 당신과 함께 이 사건을 논의하고 중국과 조선의 상황을 보고한다.<sup>92)</sup>

모택동은 이미 조선 원조의 의향과 가능성을 표명하였고, 현재 출병이 어려우며, 이런 점은 그가 보내지 않은 전문 내용과 같다고 하였다.<sup>93)</sup> 하지만 로신은 모택동의 답변을 전달받고 그 개인의 의견을 발표하였다. “모택동의 답변은 중국 지도층이 조선 문제의 최초의 입장이 바뀌었음을 증명한다. 이 답변과 이전에 모택동이 유진, 커터프와 공리프와 함께 하고 그리고 유소기가 나와 함께 했던 대화(이미 보고했음) 속에서 표시한 입장과 모순된다. 그들은 이 대화에서 중국 인민과 해방군은 조선을 돕는다. 해방군의 사기가 높아 필요하다면 일본보다 약한 미군에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로신은 “중국 정부는 5, 6개 사 혹은 더 많은 전투력을 갖춘 부대를 조선에 파견할 수 있다. 당연히 이 군대는 반탱크 무기와 화포가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며, “중국측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현재의 국제 정세와 조선의 전세가 악화되어 영미 집단이 니콜라이를 통해 중국이

92) 1950년 5월 3일, 로신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4, pp. 105~106.

93) 『建国以来毛泽东文稿』, 第1册 참조, pp. 539~541. 참조

자제하여 재난을 면하도록 음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sup>94)</sup> 이런 견해는 스탈린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때 스탈린은 풀이 죽어 있었고 로신이 전해온 모택동의 답신을 받아 조선 내 소련인의 철수를 결정했다. 이전 9월 30일, 그로미코는 슈티코프가 조선 정부와 소련 전문가의 철수를 상의할 권한을 달라고 스탈린에게 요구했었고, 또한 조선 주재 소련 기관과 상의하여 소련 공작 인원 부분 철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련 외교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시하였지만, 전문가 철수의 구체적인 문제는 조선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슈티코프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조선 주재 소련 기관의 공작 인원 철수 문제는 “이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소련 외교부와 소련 관련 부서 및 기구의 협상을 거쳐 해결”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10월 5일, 소련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소련 전문가와 소련 기구 공작 인원 철수 문제를 비준하여 정식 결의하면서 어떤 조건도 덧붙이지 않았다.<sup>95)</sup> 당일 슈티코프가 보낸 전문에는 진일보하여 조선족 소련 공민 가족(家屬), 소련 항공 대표 사무처 인원의 철수 및 필요한 경우 조선에서 전체 소련 공민을 철수시키는 문제를 제출하였다. 모스크바의 회답 전문은 철수의 권한을 소련 대사에게 일임하는 것이었다. 즉 “조선 영토에서 조선족 소련 공민 가족을 철수시키는 문제에 관해서는 당신이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항공 대표 사무처 전체 소련 인원 및 소련 군사 고문의 가족은 조선 영토에서 철수해야 한다”, “당신의 건의에 동의하며 필요한 경우 조선족 소련 공민을 포함하는 모든 소련 공민을 소련 경내와 중국 경내로

---

94) 1950년 5월 3일, 로신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4, p. 106.

95) 1950년 9월 30일, 그로미코가 스탈린에게 보낸 보고서; 1950년 10월 5일, 소련연방공화국 중앙정치국회의 제78호 기록,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3, 목록65, 문서주지 827, pp. 121~125.

철수시킨다” 등이다.<sup>96)</sup>

스탈린은 조선 형세에 대해 이미 실망하고 있었다. 현재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중국에 의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탈린은 모택동에게 다시 전문을 보내 중국이 즉각 조선에 부대를 파견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고, 굳건한 어조로 충분한 이유를 제출하였다.

5, 6개 사 지원군의 파견 문제는 중국 지도층에서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했기에 분명히 알고 있다. 만약 적이 38선을 넘으면 몇 개 군의 조선 파견을 준비해야 한다. 중국의 조선에 대한 파병 준비는 조선이 미국과 미래 군국주의 일본이 중국을 반대하는 군사 기지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이는 중국의 이해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제출한 조선 파병 문제는 적진 많건 5, 6개 사는 아니다. 아래에 국제 형세에 대한 생각을 제출한다.

1. 한국전쟁이 보여주는 것처럼 미국은 현재 대규모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2. 일본은 군국주의 세력이 아직 복원되지 않아 미국에 군사 원조를 할 수 없다.

3. 이에 비추어볼 때 미국은 조선 문제를 소련의 동맹국으로, 후견인인 중국에 양보할 것이며, 조선 문제는 조절을 거쳐야 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조건은 조선에 유리하며, 적은 조선을 그들의 군사 기지로 변화시킬 수 없다.

4. 이상의 이유로 미국은 최후 대만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일본 반동파와의 단독 조약 체결을 거절하여 일본 군국주의 활동의 부활과 일본을 그들의 극동 지역 발판으로 한다는 계획을 포기할 것이다.

---

96) 1950년 10월 6일, 바실리에프스키와 그로미코가 스탈린에게 보낸 보고서,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3, 목록65, 문서주지827, pp. 126~127.

이로부터 중국은 소극적으로 기다리거나 진지한 대결을 하지 않으며, 다시 한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중국은 양보를 얻어낼 수 없다. 중국은 양보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만도 얻을 수 없다. 미국은 대만을 장악하여 그들의 기지로 삼을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하면 이미 승리할 희망이 없는 장개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 혹은 미래 군국주의 일본을 위한 것이다.

미국은 대전을 치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체면을 위해서 대전에 말려들고, 이렇게 되면 자연 중국도 소련도 동시에 전쟁에 끌려든다. 소련은 중국과 상호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두려운가? 우리가 합치면 미국과 영국보다 역량이 있다. 독일은 현재 미국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으며, 유럽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도 중요한 군사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두려울 필요가 없다. 만약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지금 치자. 몇 년을 기다린다면 그때는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하여 미국의 동맹국이 된다. 이승만이 조선 전체를 장악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대륙을 향한 교두보를 만들게 된다.

이상은 적어도 5, 6개 사를 파견했을 경우에 의거한 국제 정세와 상황에 대한 고려를 제안한 것이다.

10월 7일, 스탈린은 모택동의 답신을 받았다. 답신에는 스탈린의 기본 논지에 찬동을 표시했고, 중국은 6개 사가 아닌 9개 사를 파견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가 아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였다. 모택동은 재차 모스크바에 대표를 파견하여 상세한 회담의 진행을 요구했다.<sup>97)</sup>

스탈린이 이 같은 이해 관계로 모택동에게 권한 것은 중국의 빠른 결정을 위해서였다. 실제로 당시 모택동은 이미 결정했을 뿐 아니라 이 결정을 김일성에게 알렸다.<sup>98)</sup> 모택동이 이때 스탈린에게 답장을 늦춘 이유는,

---

97) 1950년 10월 8일, 편사가 김일성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47, pp. 65~67.

중국의 조선 출병으로 미국과 작전할 경우 보장이 필요했기 때문인바, 즉 그것은 소련의 군사 원조였다. 모택동의 출병 결심은 승리를 전제한 것이며 또한 신속한 승리였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의 일체 우려와 곤란은 모두 해소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쟁의 신속한 승리는 동맹국 소련에 의무가 있었다. 반드시 대량의 군사 원조를 제공해야만 하고,<sup>99)</sup> 특히 공군 지원을 보장해야 했다.<sup>100)</sup> 이런 중요한 문제는 소련과 분명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으므로 모택동은 주은래와 임표를 파견하여 스탈린과 직접 담판하도록 하였다.

주은래가 담판한 목적과 결과에 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완전히 다른 견해가 있다.<sup>101)</sup> 그러나 회담 후의 역사 문헌에는, 회담의 결과는 소련 공군이 현재 준비가 없어 2개월~2개월 반 후에 비로소 출동이 가능하므로 중소 모두 잠시 출병을 미루고 김일성을 압록강 이북으로 철수하도록 한다고 표명하였다.<sup>102)</sup> 그러나 전쟁 국면은 급격히 악화되어 이미 두 동맹

98) 중공 중앙정치국 10월 5일 오후의 회의에서 조선에 출병할 결정을 내렸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毛泽东被迫下定决心”, 『毛宅东·斯大林与朝战』, 第5章第2节 참조

99) 진겸(陳兼)이 사철(師哲)과 중국 학자를 취재하는 가운데 알게 되었는데, 중국측에서 공표한 데 의하면, 10월 2일 모택동의 전보문의 미발표 부분의 내용은, 모택동이 스탈린더러 중국에 탱크, 중포, 기타 경중무기 및 몇천 대의 트럭을 포함한 대량의 군사 장비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한다. 동시에 중국 군대가 조선에 진입하여 작전할 때 공군을 원조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 177.

100) 일찍이 8월 31일, 등화(鄧貨), 홍학지(洪學智), 해방(解方)등 고급 장교들은 연명으로 주덕(朱德) 총사령관에게 “속전 속결” 방침을 실현하는 제일 첫번째 조치는 “있는 힘을 다하여 대량적인 공군을 참전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만약 소련군이 공군 혹은 기술 장비에서 우리들에게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 방침의 실현은 더욱 큰 물질상의 보장이 있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공군 조건이 미숙하다면, 출동 시간을 지연하여 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건의를 하였다고 한다. 杜平, 『在志愿军总部』(解放军出版社, 1989), p. 22.

101) 沈志華, “周恩来赴苏谈判的目的和结果: 关于1950年10月中苏领导人会谈的论争”, 『党史研究资料』, 第4期(1996) 참조

102) 1950년 10월 11일, 스탈린과 주은래가 연명으로 중공 중앙에 보낸 전보문; 李海文,

국이 기다리거나 혹은 흥정할 만한 시간을 용납하지 않았다. 10월 13일, 스탈린과 주은래가 연명으로 전문을 낸 지 이틀이 안 되어 스탈린과 모택동은 거의 동시에 자신의 최후 결정-결정의 목표와 방향이 상반될지라도 -을 하였다.

10월 13일 상오, 스탈린은 소련 해군의 보고를 받았다. 날씨가 맑아 청진 지역 해상에서 대규모 미군 군함을 발견하였다. 동시에 “청진은 해상과 공중에서 맹렬한 폭격을 받았다”고 하였다.<sup>103)</sup> 청진 지역은 중요한 전략 지역이다. 스탈린은 만약 미군 부대가 다시 양동 작전을 실시한다면 북조선의 정부와 군대는 포위되고 조선인민군 후방은 방어선을 잃게 된다, UN 부대가 조금도 막힘 없이 조중 국경과 조소 국경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됐다. 스탈린에게는 확실히 결정적 시간이었다. 중국 출병은 기대할 수 없었고, 제때에 결심을 해야 했다. 당일 하오, 김일성에게 급전을 보내 주은래와 임표와의 회담 상황을 통보하고, 김일성에게 주은래가 이미 중국은 전쟁 준비 부족을 표시했음을 미안스럽게 전했다. 따라서 김일성에게 잔여 부대를 중국과 소련으로 철수하라고 건의했다. 또 슈티코프는 김일성을 도와 철수 명령의 조치와 계획을 제정하라고 명령했다. 슈티코프는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저녁, 김일성과 박헌영을 만나 그들에게 전문 내용을 읽어주었다. “전문의 내용은 김일성과 박헌영에게는 의외였다”, “김일성으로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웠으나 이미 이런 건의가 만들어져 집행하기로 했다.” 김일성은 소련에서 만들어진 철수 계획에 도움

---

“中共中央究竟何时志愿军出国作战?”, 『党的文献』, 第5期(1993), p. 88; 張希, “中国人民志愿军入朝前夕突然暫停”, 『党史研究資料』, 第1期(1993), p. 3. 필자는 李海文·張希와 논쟁하는 가운데서 목전 중국 서류 중에 아직도 스탈린과 주은래가 11일 연명으로 보낸 전보문을 찾지 못했으나, 모택동이 13일 주은래에게 보낸 전보문에 이 전보문에 대하여 언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03) 1950년 10월 13일, 골로브코와 포킨이 스탈린에게 보낸 보고서,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3, 목록65, 문서주지827, p. 139. 골로브코는 때로는 소련 해군부 제1부부장 겸 해군 참모장을 임했음.



줄 것을 요구했고, 저녁에는 철수의 안배를 하였다.<sup>104)</sup>

모스크바가 조선 포기 결정을 한 데 반해 북경은 오히려 거의 상반된 결정을 하였다. 모택동은 11일, 모스크바에서 보낸 전문을 받고 긴급히 출정 준비중인 팡덕회를 북경으로 오라고 명령하고 13일 하오, 정치국 긴급 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 후 모택동은 주은래에게, “정치국 동지들과 상의한 결과 우리 군의 조선 출동이 유리하다는 데 일치하였다”, “출병하지 않으면 적은 압록강변에 이르게 되어 국내적·국제적으로 반동의 기운이 증가되며 여러 면에서 불리하다”고 전문을 보내고, 공군의 엄호가 없으므로 전쟁 초기에는 다만 남조선 부대와 작전하기로 결정했다.<sup>105)</sup> 이와 동시에 출병 결정을 소련 대사에게 통지하고 공군 원조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모택동은 “주된 문제는 우리를 엄호하는 공군이다. 공군이 가능한 빨리 도착해야 하며 2개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하였다. 계속해서 중국 정부는 “현재 제공된 장비를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으므로 차관 방식으로 이 장비를 보유하고 싶다”하였고,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주은래가 빌리포프 동지와 함께 다시 토론해야 한다고 하였다.<sup>106)</sup>

스탈린은 이 전문을 받은 후 즉각 김일성에게 통지하라고 슈티코프에게 명령했다. “중국 동지의 새로운 결정에 따라 어제 북조선에서의 소개와 조선 군대의 철수 전문의 집행을 잠시 늦추라”고 하였다.<sup>107)</sup> 전보를 받은

---

104) 1950년 10월 14일, 슈티코프가 핀시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5, p. 3. 김일성이 철퇴를 시킨 자세한 상황은 曼紹洛夫, “斯大林, 毛泽东与中国决定介入朝鲜战争”, p. 104 참조.

105) 『建国以来毛泽东文稿』, 第1卷, pp. 552~553, 556.

106) 1950년 10월 13일, 로신이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5, pp. 1~2.

107) 1950년 10월 14일, 핀시가 김일성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47, pp. 74~75. 스탈린이 전보문에 서명한 날짜는 10월 13일이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사실상 14일 새벽 3시 30분경이야 로신의 중국 출병에 관한 전보문을 받아보고 이 전보문을 작성하여 보낸 것이다. 이 전보문의 날짜를 서명하여 발송한 오류가 글자를 잘못 쓴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한 것인지 알수가 없다.

후, 스탈린은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당일 다시 김일성에게 전문을 보내 “이전에 통지한 중소 지도층간의 회담 당시 건의를 취소하라”고 강조하였다.<sup>108)</sup>

주은래의 진일보한 교섭에도 불구하고 소련측은 2개월 반 후에도 소련 공군은 역시 출동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조선 상공에 진입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sup>109)</sup> 이렇다 할지라도 중국인민군 주력 부대는 10월 19일 압록강을 건너 10월 25일 항미원조(抗美援朝)의 첫발을 내디뎠다. 스탈린은 심중의 무거운 돌이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다.

#### 4. 소련 공군은 한국전쟁에 직접 참여했다

중국의 조선 출병 결정 과정에는, 북경과 모스크바가 소련의 공군 협조 하에 지원군이 작전하는 문제로 한 차례 토론과 논쟁을 벌였다. 방금 형성된 중소 동맹 관계의 한 차례 험준한 시련이었음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모택동은 중의를 모으는 데 힘썼으며, 중국이 직면한 위기-소련 공군이 출동을 지연하여 중국군과 협동 작전을 펼 수 없어 부각된 위기-에서 의연히 중국 지원군을 조선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감동적 결정은 스탈린을 놀라게 했으며, 모택동과 중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하였다. 이 점에 대해 모택동 본인은 깊은 이해가 있었다. 몇 년 후 모택동이

108) 1950년 10월 14일, 편사가 김일성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47, p. 77.

109) 13~15일에 주은래가 모스크바에서 교섭한 상황에 관해서는 러시아 문헌에서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자료는 중국측 당사자의 회억 또는 관련 연구 논저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 『毛宅东, 斯大林与朝战』, pp. 278~280 참조.

주중 소련 대사를 접견했을 때 “스탈린이 어느 정도 중국공산당을 신뢰하는 주요 원인은 한국전쟁의 발발, 중국 지원군의 조선 참전이다”<sup>110)</sup>라고 말했다. 스탈린의 모택동에 대한 신임 표시는 한국전쟁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표지이기도 하다. 바로 상당 정도 그 자신이 소련 공군의 지원군 원조 작전에서 설정된 한계를 돌파한 것이다. 1950년 10월 중순, 주은래가 소련에서 담판하는 기간에 모스크바는 공군 출동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표시했다. 스탈린은 우선 소련은 준비가 부족해 “2개월~2개월 반을 기다려야 공군을 출동시켜 지원군과 조선에서 작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11)</sup> 모택동이 우선 출병의 결정을 내리고 소련 공군이 작전에 투입되기를 기다린 후에 스탈린은 다시 몰로토프를 파견하여 주은래에게 알렸다. 소련 공군은 단지 압록강 북쪽 중국 경내에만 주둔해야 하고, 2개월~2개월 반 후에도 조선 경내에 진입해서 중국 군대를 엄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112)</sup> 그러나 중국 인민 지원군이 조선에 들어가 한 차례 전쟁을 한 후 상황은 바뀌었다. 소련 공군은 즉각 조선의 공중전에 투입되었을 뿐 아니라 오래지 않아 작전 반경을 압록강 상공에서 청천강과 대동강 일선으로 확대하였다.

전쟁 초기 미 공군은 44개 극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항공 대대의 657대의 작전 비행기를 북조선에 투입했다. 조선인민군은 제트 요격기가 없었으며, 성능이 낙후된 20대의 전투기만 있었고 고사포도 매우 적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 폭격기는 한낮에도 제트기의 엄호 없이 작전 비행을

110) 尤金, “毛宅东谈共产国际与斯大林的对华政策”, 『极东问题』, 第5期(1994), p. 17 참조.

111) 1950년 10월 13일, 모택동이 주은래에게 보낸 전보문; 李海文, “中共中央何时决定志愿军出国作战”, 『党的文献』, 1993年 第5期, p. 88에서 인용함. 모택동은 같은 날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문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 “우리는 공군이 속히 도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두 달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러시아연방대통령 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5, pp. 1~2.

112) 熊華源·廖心文, 『周恩来的总理生涯』(人民出版社, 1997), pp. 53~54.

할 수 있었다. 게다가 미 항공병이 평야 부근의 북조선 공군 기지에 대해 몇 차례 밀집 공습을 한 후에는 북조선 공군이 훼손을 입어 작전 능력을 상실했다.<sup>113)</sup> 당시 중국 공군의 작전 부대는 아직 건립되지 않은 상태였다.<sup>114)</sup> 중국의 몇십만 대군과 대량의 군수 물자가 좁고 긴 조선의 산맥을 통과할 때, 미 비행기가 무인지경에서 연속 폭격으로 중국군에 얼마나 많은 손실과 재난을 가져다 주었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증대한 시간에 한국전쟁 중에 첫번째 공중전이 일어났다. 소련 공군은 모두 13개 사로 1950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후로 중국 동북·화북·화동과 동남 지역에 진주했었다. 그 중 빌리노프의 항공사(航空師)는 스탈린의 건의에 따라 8월에 동북에서 방공 임무를 책임졌다.<sup>115)</sup> 이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첫번째 소련 공군이었다. 1950년 11월 1일, 소련 비행기가 조선 상공에 출현했다. 주중 군사 총고문 차하로프 대장이 스탈린에게 보고한 전황에 근거하면, 이날 조선 비행단의 6대 야크-9기가 “먼저 안주 지역에서 전투 임무를 집행하였다. 전투 결과는 2대의 B-29 폭격기와 1대의 무스탕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전투 임무 중 2대의 야크-9기가 귀환하지 않았다”고 한다. 소련 참전 비행기는 안동-신의주 지역 전투에 투입

113) 奥亞洛夫, “1950~1953年朝鲜战争中的苏联空军”, 『近現代史』, 第4期(1998), p. 130. 중국측의 통계에 따르면, 1950년 10월 말까지 미국측은 한국전쟁에 공군 병력을 14개 대대, 1,100여 대의 작전 비행기를 투입하였다고 한다. 王定燾 主編, 『当代中国的空军』(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89), p. 127, 79, pp. 130~131.

114) 1950년 6월 19일, 중국공군제4훈련여단(후에 師로 바뀜)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는데, 주요 임무는 비행 훈련이었다. 1950년 12월 21일까지 1개 대대가 안동(지금의 단동) 남두 기지에 진주해서 소련 공군을 따라 비행실전 훈련을 했다. 한 달 후 중국 공군은 처음으로 몇 대의 비행기를 출동시켜 공중전에 참가하였다. 『当代中国的空军』, pp. 79, 130~131.

115) 『当代中国的空军』, pp. 78~79; 1950년 7월 13일, 스탈린이 로신에게 보낸 전보문; 1950년 7월 22일, 로신이 모택동이 보낸 전보문을 스탈린에게 전함.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4, pp. 85, 88~89. 그러나 중국측 자료에서는 벨로프사단의 비행기가 138대라고 한 반면에, 스탈린의 전보문에서는 124대라고 하였다.

된 것이다. “우리 조종사는 미그-15기로 2대의 F-82를 격추시키고 다른 비행기 2대는 고사포로 격추하였다. 모두 4대의 비행기가 격추되었다. 공중전에서 우리는 손실이 없다”, “빌리노프 동지의 미그-15기는 심양과 안산 2개 비행장에서 이륙하였다. 비행장마다 모두 8대의 비행기가 이륙했다”고 하였다.<sup>116)</sup> 스탈린의 생각에는 공군이 중국군을 지원하는 것이 민감한 문제였다. 그러나 소련 공군은 지원군이 10월 25일 정식으로 지상 전투에 참여한지 7일 후에 전투에 투입되었다. 단지 압록강 상공이지만 스탈린의 결심과 모택동의 출병 결정에 대한 지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였다.

첫번째 공중전이 성공을 거둔 지 얼마 안되어, 소련 공군은 심양 지구에 주둔한 제151과 3,242개 요격기 부대를 기반으로 공군 소장 빌리노프(이후 러버프가 후임)가 지휘하는 제64 독립 요격기 항공군을 건립하였다. 소련 공군의 주임무는 압록강의 교량, 발전소와 제방 및 중조 국경 이남 75km 내의 북조선 영토의 도로와 비행장을 보호하여 적기의 습격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제64항공군도 심양과 안산 기지에서 중조 국경의 안동 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sup>117)</sup> 11월 상반기에는 소련 조종사들이 23대의 미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우수한 전과를 올렸다. 동시에 스탈린은 두 차례로 나누어 빌리노프에게 120대의 미그-15 신형 전투기 증파를 결정하였다.<sup>118)</sup>

미그-15기의 성능이 미국의 F-86기와 비교되는 것 외에 소련의 한국전쟁에서의 실력은 미국과 차이가 컸다. 비행기와 조종사 및 후방 인원 수

116) 1950년 11월 2일, 자하로프가 핀시(스탈린)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5, pp. 71~72.

117) “1950~1953年朝鲜战争中的苏联空军”, p. 130. 제151사 즉 벨로프 사단, 제324사가 동북에 진주한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

118) 1950년 11월 15일, 모택동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 45, 목록1, 문서주지335, p. 116.

도 미국과 크게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지상 유도, 무선 전파 방해, 레이더 정찰, 통신 연락 등 기술 장비가 매우 낙후하였다. 심지어 공중 근무 인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생활 조건도 미국과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소련 제트식 요격기의 전투 투입은 조선의 공중전 국면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공중 요새’라 불리는 B-29 전략 폭격기에 대해서는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즉 “제64항공군의 조종사와 B-29는 여러 차례 조우하였으며, 조우 때마다 미국은 엄청난 손실로 끝을 고했고, 커다란 아픔과 자극을 안겨주었다. 4구동식 폭격기는 값이 매우 비싼 데다가 항상 10~12명의 인원이 비행기와 함께 사망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인정하는 것처럼 제트식 요격기는 폭격기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1950년 11월 말, 미국 극동 공군 사령부의 골칫거리는 압록강 지역에서 전략 목표에 대한 폭격에 미국 비행기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예로 11월 6일, 미국 극동 공군 사령관 조지 스트라이트마이어 장군의 명령에는, 자신의 전략 폭격기 병단이 압록강의 6개의 전략 교량과 10개의 북조선 변경 도시에 공습을 명령했으나 소련 공군의 투입으로 임무 완성을 못했다고 했다. 과거 미국 비행기는 300m 저공 급강하 폭격과 반복 폭격을 할 수 있었지만 현재 소련 방공 화포의 대공 사격으로 전략 폭격기는 6,000~7,000m 이상에서만 폭격이 가능했다. 따라서 투탄의 정확성은 크게 떨어졌다. 성능이 뛰어난 미그-15기의 참전도 미국 폭격기로 하여금 목표 지역에 매우 짧은 시간 머무르게 하여 미 공군의 폭격 임무를 저해하였다. 전쟁 시작 이래 미군의 공중 우세는 첫번째로 시련을 겪었다.<sup>119)</sup>

이와 같을지라도 미국은 조선 전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공중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중국군이 남진함에 따라 후방 보급선이 계속 연장되었고, 미 공군의 폭격과 공습의 위협도 날로 엄중해졌다. 분명히 소련 공

119) “1950~1953年朝鲜战争中的苏联空军”, pp. 132~134.

군은 단지 압록강 상공에서만 작전을 했고, 멀리 중국군의 물자와 병력원의 보급을 보장하지 못했다. 중국군의 후방 교통 운수선을 엄호하기 위해 소련 정부와의 협상을 거쳐 1951년 1월 10일부터 소련 공군은 2개 사를 출동시켜 집안(輯安)에서 강계, 안동과 안주 두 철로 운송로를 엄호하며 후방을 보호하였다.<sup>120)</sup>

그러나 전세의 발전은 소련 공군의 작전 반경을 남으로 확장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세번째 전투에서 중조 군대는 이미 38선을 넘었으나 소련 공군은 기지가 중국 경내에 있었기 때문에 비행 거리의 제한을 받아 남하할 수 없었다. 중조 연합군의 강계·안주 전선 이남 물자 운송과 부대 배치의 적 공군의 위협 아래 놓였다.<sup>121)</sup> 1951년 초 중조 연합군이 막 휴식을 취할 때 UN 군대가 반격을 가하였다. 지상 행동에 맞춰 미국 극동군 사령부는 중조 군대의 후방 전략 목표를 폭격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북조선을 11개 구 172개 목표로 나누었고, 그 중에는 45개 철로 교량과 12개의 공로교, 13개 터널, 39개 철로 중심 지역과 63개 물자 보급소를 포함한다. 안동~신의주는 가장 중요시되는 'A' 지역이며 매일 평균 12~24차례씩 B-29기가 이 목표를 폭격하였다. 1951년 4월 소련군측 통계에 따르면 미 공군은 1,416회(폭격기 420회, 요격기 996회) 비행하였으며, 5월에는 3,500회 비행하였는데, 폭격기가 300회(대낮 230회, 야간 70회)였고, 주로 제트식 요격기가 3,200회에 달한다. 미 공군의 주공격 방향은 안주 지역의 선착장, 평양 지역에 건설중인 비행장, 안주·평양 등지의 도로, 철로 및 평양 이남 지역의 각 목표였다. 폭격기는 B-29와 B-26이며 주로 소형 비행기군과 단기 비행하여 비행 고도는 3,000~4,000m였다.<sup>122)</sup>

120)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部編,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援助戰爭史』(軍事科學出版社, 1988), p. 94.

121) "1950~1953年朝鮮戰爭中的蘇聯空軍", pp. 138~139.

122) 1951년 7월 18일, 1951년 5월 연합 공군에 관한 전투 보고서, 러시아연방국방부문서중심, 전주지35, 목록173543cc, 문서주지69, pp. 45~46.

이런 상황에서 몇 백 km 연장된 중조 연합군 후방 공급선은 심각히 파괴되었고, “병사, 탄약, 식량은 전혀 보충받지 못했다.” 심지어 지원군은 “맨발로 눈길 행군”을 해야 했다.<sup>123)</sup> 적기의 후방 보급선 파괴를 해결하기 위해 1951년 2월 24일, 섭영진과 팽덕회가 차하로프에게 소련은 2개 공군사를 출동시켜 조선 경내로 이동하고 38선 이북의 교통선을 엄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하로프가 거절하자 팽덕회는 불만에 가득 차 26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주은래, 모택동과 함께 상의하고 스탈린에게 직접 이 요구를 제출하기로 했다.<sup>124)</sup> 모택동은 3월 1일, 스탈린에게 전문을 보내 “현재 조선 작전의 어려움은 적의 화력이 막강하고 우리 운송 능력은 약해서이다. 물자가 30~40% 폭파되었고, 적군은 점차 보충되어 6만~7만 명이 6월 말에 조선에 이르지만 우리는 공군 엄호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은 10개 항공 병단을 조선에 보낼 수 있지만 조선에서 쓸만한 비행장을 찾지 못했다. 주된 문제는 “의지할 만한 공군 엄호가 없으며” 비행장 복구를 할 수 없었다. 모택동은 이전에 소련 공군은 중조 국경에서만 작전했고 조선의 중심 지역의 진입은 스탈린의 입장에서조차 어려운 문제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팽덕회 동지는 소련 공군이 평양·원산선 및 그 이북 비행장에서 엄호 임무를 부담하기 바라며, 소련 공군이 사용하는 비행장을 조선 내로 이동하기 바란다. 안되면 조선 비행장은 복구할 수 없고 중국 공군의 참전 가능성도 없다. 그리고 탱크와 포병의 이동 역시 곤경에 빠진다. 하지만 이 일은 모든 국제 형세의 이해에 따라 고려해야 하며 이렇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신중하게 제안하고 있다.<sup>125)</sup>

123) 1951년 1월 27일, 팽덕회·김일성이 모택동에게 보낸 전보문, 王焰 主編, 『彭德怀年譜』(中國人民出版社, 1998), p. 469; 1951년 1월 31일, 팽덕회가 모택동에게 보낸 전보문, 『彭德怀军事文獻』(中央文獻出版社, 1988), p. 372.

124) 『彭德怀年譜』, p. 480.

125) 中共中央文獻研究室·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編, 『周恩來军事文選』, 第4册(中国



이번에는 스탈린이 이전처럼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즉시 모택동에게 회신하여 “안동 지역의 2개 중국 공군사로 현지의 전력과 교통선을 엄호할 수 있다면, 빌리노프 장군이 지휘하는 제151과 제324의 2개 요격기 기지를 조선 경내로 이동하여 중국과 조선의 후방을 엄호하는 데 동의한다. 조선은 이미 동관 활주로가 있으며, 우리는 소련에서 다시 2개의 동관 활주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스탈린은 또 “동의만 한다면 비행장을 엄호할 고사포와 포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제안을 하였다. 3월 15일, 스탈린은 모택동과 주은래에게 전하라고 차하로프에게 명령했다. “이전 전보에서 빌리노프의 공군 기지를 조선으로 이동하여 중국 부대의 후방을 엄호하라는 건의를 채택한 것” 외에 “앞으로 중요 전투에서 당신들은 더 많은 요격기가 전선에 필요하다. 그래서 소련은 대형 요격기 부대를 안동에 보내 2개 안동 중국 요격기 부대가 전선에 배치되도록 엄호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고, 모택동은 “깊은 감사”를 보냈다.<sup>126)</sup> 이런 상황은 스탈린의 공군 사용 문제에 대한 고려가 중국 출병 전보다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모택동과 중국군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감이 아니라면 스탈린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후에 조선 내 비행장 복구 작업은 여러 번 미국 폭격기에 의해 파괴당했고 소련 공군은 조선에 진주하지 못했다.<sup>127)</sup> 그러나 중조 국경 지역의 묘구(廟溝), 대보(大堡), 대고산(大孤山) 등 3개의 비행장 건설에 따라 대량의 소련 공군 후속 부대가 중조 연합군 후방의 전투를 엄호하는 데 가

人民出版社, 1997), p. 164 ; 러시아 문서 문헌 : 1951년 3월 1일, 모택동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7, pp. 78-82.

126) 1951년 3월 5일, 3월 15일, 필리포프가 모택동에게 보낸 전보문 ; 1951년 3월 18일, 모택동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7, p. 89, 118, 126.

127) 후에 지원 군공군도 중국 경내의 비행장에서 이륙하여 조선 상공에서 작전을 하였다. 1951년 12월, 중앙군위에서는 비행기를 조선 경내에 진주시키는 계획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当代中国的空军』, pp. 141, 205.

세하였다. 따라서 제64항공군은 비행장 혹은 공중에서 작전을 담당하는 요격기 수가 2~3개 항공단에서 4~5개 항공단으로 증가하였다.<sup>128)</sup> 결국 1951년 봄에 소련 요격기는 조선 상공에서 상당한 효과를 얻었으며, 압록강 대교를 엄호하여 중조 연합군의 운송선에 대해 일정한 보호 작용을 했다. 비록 비행 거리가 제한을 받아 미 항공병의 조선 중부와 동부 지역 비행장과 교통로에 대한 폭격과 공습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조선 서북부 압록강에서 청천강까지의 지역 상공에서는 “미그-15 요격기는 미국 조종사에게 갈수록 공포를 느끼게 하는 무서운 적이 되었다.”<sup>129)</sup>

1951년 8월, 개성의 정전 대화가 중단되자 미국은 다시 대규모 폭격을 시작하였다. 8월 18일부터 시작된 북조선 교통 중심에 대해 밀집 폭격이 실시되었다. 8월 상반기, 미군 비행 강도는 매일 평균 174회였으며, 하반기에는 248회에 달했다.<sup>130)</sup> 이때 제64항공군은 3개 항공 부대(151,303, 324-R), 2개 고사포 부대(82와 92-R)가 있었고, 무기는 자동 조절 고사포, 경계와 포 조준을 지휘하는 레이더 기지, 1개 항공 보급 부대, 2개 독립 탐조등 항공단 및 병원과 기타 후방 부대가 있었다. 그러나 비행기 총수는 매우 적었으며 안동 지역에 배치된 성능이 우수한 신형 미그기는 190대로 전투 상태의 미그기 수는 아직 부족했다. 공군이 상대해야 하는 조선 주재 미 공군은 각기 다른 형의 전략·전술과 해군 항공병의 비행기가 1,500대 있었다. 하지만 소련 공군은 9월 1일부터 미 공군에 대해 적극적인 반격을 하였다. 9월 19일의 공중전에서 미그기는 3대의 “파도식(佩刀式)” 비행기와 3대의 요격 폭격기를 격추하였다. 10월 23일에는 8대의 B-29기가 비록 34대의 F-86, 55대의 F-84의 엄호가 있었지만 3대를 격추

128) 러시아국방부문서중심, 전주지161ak, 목록178612, 문서주지88, p. 21 ; 전주지35, 목록 173543, 문서주지73, p. 52.

129) “1950~1953年朝鲜战争中的苏联空军”, p. 131.

130) 1951년 10월 18일, 1951년 8월 연합공군의 전투에 관한 보고서, 러시아국방부문서 중심, 전주지35, 목록173543cc, 문서주지69, pp. 253~254.

하였다. 10월 24일, 34대의 미국 비행기가 순천 대교를 폭격할 때 40대의 미그기가 응전하여 미국은 다시 1대의 F-84기와 1대의 B-29기를 잃었다. 10월 30일, 56대의 준비 상황인 미그-15기 중 44대가 21대의 B-29기와 200여 대의 엄호 요격기로 구성된 미군 비행대에 응전하여 12대의 B-29와 4대의 F-84를 격추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그기가 활동하는 압록강과 청천강 상공에서는 제64항공군이 분명한 공중 우세를 차지하여 미군은 이 지역을 ‘미그기 통로’라 불렀다. 소련 공군의 용감한 전투는 미국 비행기로 하여금 이 지역에서 선정된 목표에 효과적으로 폭격하지 못하게 하였고 단지 역량을 평양 지역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최후에 미그기는 조선 서북부 지역에서 우세하여 미국 극동 공군은 대낮에 B-29 전략 폭격기 사용을 금지시켰고, 이런 상황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다.<sup>131)</sup> 지미 엔코의 보고에 따르면 1950년 11월 1일에서 1951년 12월 6일까지 소련 공군은 모두 569대의 적기(고사포 격추 59대 포함)를 격추하였고, 소련의 손실은 63대였다.<sup>132)</sup>

제64항공군의 다른 임무는 중조 연합 공군을 도와 조종사를 훈련시킬 뿐 아니라 그들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중조 연합 공군은 1951년 가을 이후에 작전에 참가하였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중조 공군과 소련 공군은 혼합 편대와 연합 작전이 없었다. 그러나 쌍방은 작전 협조 방침, 사용 병력의 통일 등 문제에서 시종 협조적이었다. 제64항공군의 비행 인원은 F-86 요격기의 강력한 엄호 아래 대량 폭격기의 격퇴를 담당하였으며, 중조 연합군의 비행사들은 필요한 경우 증원을 담당했을 뿐이다. 그들은 전선에서 주로 소형 적기와 전투를 벌였다. 소련 요격기는 또한 중

131) 洛博夫, “在朝鮮上空米格走廊”, 『航空兵与宇航学』, 第11期(1990), p. 31; “1950~1953年朝鮮战争中的苏联空军”, pp. 130~131, 139~140.

132) 1951년 12월 9일, 슈테멘코가 波斯克列貝舍夫에게 보낸 보고서,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3, 목록65, 문서주지829, pp. 69~70.

조 공군에 원조를 해야 했고, 위급한 상황에서 중국과 조선 조종사를 쫓는 F-86기를 격퇴하였다. 중조 연합 공군의 전선 비행장인 안동, 대보, 대고산의 비행기 총수가 제64항공군의 미그기를 초과할 경우, 소련 조종사는 계속 비교적 복잡한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1952~1953년 겨울의 복잡한 기상 조건은 비행 기술이 미숙한 중조 연합 공군 부대로는 전투에 투입하기 어렵게 하였고, 결국 제64항공군의 작전 임무를 가중시켰다. 1953년 소련 공군의 전투 비행은 월평균 지난 1년보다 33% 증가했다.<sup>133)</sup>

반드시 깊고 넘어가야 할 것은, 소련 공군은 조선 작전에서 모스크바의 각종 제한을 받았으며, 이러한 제한은 심리적이고 작전 기술 발휘 면에서 조종사들의 장애가 되었다는 점이다. 즉 하달 명령에는 어떤 비행기도 소련 영토에서 날아와 작전에 투입되는 것을 금지한다, 소련 비행기는 일체의 자신의 표식을 없앤다, 중국 비행기나 조선 비행기로 위장한다, 모든 소련 조종사는 중국 군복을 입고 보증서를 써서 결코 조선에서 작전한 것을 누설하지 않도록 선서한다, 소련 조종사는 어떤 경우에도 공중 통화시 러시아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등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포로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소련 비행기는 UN이 장악한 지역과 전선 인접 상공 비행은 엄격히 금지하였으며, 서해 상공 작전에서는 미그기가 평양~원산선을 넘어 남쪽으로 적기 추적을 금지하였다. 즉 39선을 넘지 못하였다. 1951년의 전선은 이미 38선에서 안정되었다.<sup>134)</sup> 이는 스탈린이 소련 공군의 사용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처음에 정한 원칙—소련 공군은 전선에서 중국군과의 작전을 허락하지 않는다—을 시종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133) “1950~1953年朝鮮戰爭中的蘇聯空軍”, pp. 142~143.

134) 哈利迪, “蘇聯在朝鮮的空戰(Air Operation in Korea: The Soviet Side of Story)”, 威廉姆斯編, 『一場革命戰爭: 朝鮮與戰後世界的轉變(A Revolutionary War: Korea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Postwar World)』(Chicago: 1993, 영문판) p. 154에서 발췌; “1950~1953年朝鮮戰爭中的蘇聯空軍”, p. 133, 146.

스탈린의 한 전보에는, 공군 원수 크라스프스키와 빌리노프 장군에게 중국 조종사 훈련 작업이 너무 늦다고 질책하고 있으며, 또 “중국군은 공군 엄호 없이 전투할 수 없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8개 중국 공군 요격기 부대로 구성된 집단군을 건립하여 전선에 내보내야 한다. 현재 이것이 당신들의 중요 임무다”라고 하였다. 동시에 “빌리노프의 부대를 중국 동북 변경 가까운 지역에 파견할 수 있으므로 2개 부대를 북조선 후방에 두고 중국 요격기 부대가 전선 가까이 있는 비행장에서 날아오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절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안배가 되면 중국은 전선에서 자신의 공군에 의지할 수 있다”고 요구하였다.<sup>135)</sup> 제64공군의 보고에 따르면, 1951년 4~5월 가장 격렬한 전투에서 중국군은 “항공병의 지원이 없어 적의 우세한 공격으로 후퇴해야 했다”고 하였다. 똑같은 이유로 “대부분이 야간과 악천후 속에서 실시된” 반격을 할 수밖에 없다.<sup>136)</sup> 같은 해 한국전쟁에 참가한 소련 공군은 모두 “그들 공군과 중조의 지상 부대는 어떤 합작도 없었다”고 강조하며 심지어는 군사 고문을 통해서도 이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관계 소홀로 북조선 고사포가 소련 비행기를 조준하였으며, 소련 조종사가 중국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련 공군은 작전중에 지상 부대와 연계하여 작전에 출동할 수 있는 폭격기가 없으며 준비도 안 되어 있었다. 빌리노프가 방문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폭격기가 없다. 폭격기로 미국 군함에 대해 폭격한 적도 없다”, “그것은 나의 임무가 아니”라고 인정했다.<sup>137)</sup> 중국 자료도, 서해안 대화도

135) 1951년 6월 13일, 필리포프가 크라스프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9, p. 47.

136) 1951년 4~5월 전역에서, 제64공군 전투기의 작전에 관한 논평, 1951(날짜가 불명확함), 러시아국방부문서중심, 전주지35, 목록13543cc, 문서주지99, pp. 245~251.

137) 哈利迪, “苏联在朝鲜的空战”, p. 154, 161. Goncharov가 진행했던 취재중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 Litai, *Uncer Partner,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등지에서 한 차례 한미 정보 기지를 폭격하여 지상 부대와 상륙 작전을 연계한 임무는 중국 공군 제8사 독립으로 이루어졌다(소련 고문은 전투 전에 이미 귀국했다)고 증언하고 있다.<sup>138)</sup>

비행 기술의 제한으로 중조 연합 공군도 전선에서의 작전이 매우 적었다. 그들은 기상이 좋은 상황에서만 보병과 작전을 하였으며, “악천후에서는 전투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sup>139)</sup> 1951년 12월, 중앙군사위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지원군 공군의 임무에 대해서도 지상 부대의 직접 지원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청천강 이북 지역의 부분 제공권 유지를 빼앗아버렸다. 중요 교통 운송선, 군사 목표와 공업 목표를 보호하고 간접적으로 지원 부대와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sup>140)</sup>

스탈린이 고려한 것은 당연히 소련 공군의 참전이 폭로된 이후 미소간의 갈등 격화였다. 주의할 만한 것은 워싱턴도 모스크바와 똑같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소련과 공동으로 소련 공군 참전의 비밀을 지켰다. 실제로 미 공군은 일찍 그들 공중전의 상대는 조선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었음을 알았다. 미국 조종사들은 공중에서 유럽인의 얼굴을 보았으며, 무선 통화 속에서 러시아어를 들었다. 이런 보고가 있자,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소식을 봉쇄하여 정부가 보복하라는 여론 자극으로 야기되는 전쟁의 확대를 피하려고 하였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참전 소식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여부에 관한 쟁론에서, 미국무성 정책계획사 폴 니차이의 비밀 유지 건의 문건으로 이에 대한 결론을 맺었다. 니차이는

---

138) 中国人民解放军历史资料丛书 编辑审查委员会, 『空军回忆史料』(解放军出版社, 1992), p. 309.

139) 1951년 7월, 연합 공군의 전투에 관한 보고서, 1951년(날짜가 불명확함), 러시아국방부 문서중심, 전주지20571, 목록174045cc, 문서주지188, pp. 73~74. 1952년까지 지원군 공군 700여 명 비행사 중에서 겨우 28명이 야간기상 조건하에서 작전할 수 있는 간단한 기능을 파악하였다고 한다. 『当代中国的空军』, p. 190.

140) 『当代中国的空军』, pp. 205~206.

후에 “만약 진상을 밝힌다면 대중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의 확대이며 소련과의 심각한 충돌에 말려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젠하워 정부도 계속 “누설되던 러시아와의 전쟁 압력” 때문에 이 사실을 “선반에 올려둔다”고 하였다.<sup>141)</sup>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이런 묵계는 소련 공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진상을 40년 간 묻어두었다.

어쨌든 소련 공군은 중국의 항미원조 전쟁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역할을 했다. 전쟁 기간 동안 전후로 12개 소련 공군 부대가 공중전에 투입되었고, 교대로 참전한 공군 인원은 총 7만 2,000명이다. 1952년 가장 많아서 2만 5,000~2만 6,000명에 달했다. 소련 요격기는 총 1,097대의 적기를 격추하였고, 소사 포병은 212대의 적기를 격추하였다. 러시아 연방 무장 능력 총참모부의 통계에 따르면, 소련 항공병은 335대의 비행기와 120명의 승무원의 희생이 있었다. 전쟁 중 소련군의 희생은 총 299명이다.<sup>142)</sup> 결과적으로 소련 공군은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공중전에서 중조 방면에서 주력군이었다.<sup>143)</sup> 스탈린이 시종 중국 지도층의 최초 요구-소련 공군의 중국 지상 부대와의 협동 작전 요구에 불만이었지만 중국 지도층은 후에 이에 대한 이해를 하였으며, 그들은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모택동은 소련 공군의 원조를 요구하는 몇 차례 전보에서 모두 소련 비행기의 후방 교통 운송로 엄호만을 제안했다. 앞서 인용한 전보의 어휘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이 문제를 얘기할 때의 신중한 태도는 실제

141) “1950~1953年朝鮮战争中的苏联空军”, p. 133, 146; “苏联在朝鮮的空战”, pp. 159~160.

142) “1950~1953年朝鮮战争中的苏联空军”, p. 145; “苏联在朝鮮的空战”, pp. 149~150.

143) 지원군은 비록 작전상에서는 용맹하지만, 기술이 낙후하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파가 소련 공군보다 훨씬 못했다. 합계에 의하면 10개의 전투기사, 2개의 폭격기사가 있고, 모두 6만여 명이 참전했으며, 330대의 적기를 격추했고, 231대가 적기에 의하여 격추당하였다. 『当代中国的空军』, pp. 199~201.

스탈린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5. 모스크바는 중조 연합군의 진정한 정책 결정자였다

한국전쟁에 관한 러시아 해제 당안 속에는 가장 많은 것이 모스크바와 북경과 평양 사이에 오간 전보이다. 이 당안에서는 전쟁의 전략 배치에서 구체적인 전투와 전술 안배, 담판의 원칙과 방침에서 논쟁의 기교와 방법, 언제 시작하고 끝났으며 언제 나가고 물러가는지를 볼 수 있다. 북경과 평양은 모두 모스크바의 의견 청취가 필요했다. 중조 혹은 전선 지휘관과 후방 정책 결정자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거나 갈등이 있을 경우 역시 모스크바가 나서서 중재하였다. 결론적으로 모택동의 주장은 항미원조의 결정 과정에서 분명한 주도 작용을 했지만, 최종 결정은 스탈린과 그 계승자들이 한 것이다.

중국 지원군은 조선에 들어가 두 차례에 걸쳐 매우 성공적인 운동전을 하여 뚜렷한 전과를 올렸다. 평양을 점령했을 뿐 아니라 전선을 38선 부근까지 확대하였다. 이때 38선 이남까지 제3차 전투를 발동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전선을 총지휘하는 팽덕회는 2번의 전투로 부대가 피로하고 환자가 증가하여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후방의 보충은 보장할 수 없고 대부분 부대에 동절복이 없으며 탄약과 식량의 공급도 일정치 않다, 이런 상황은 갈수록 더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팽덕회는 1950년 12월 8일 전보에서 적에 대해 “섬멸의 타격을 줄 수 없다”, 설사 38선을 넘거나 서울 확보가 가능해도 이렇게는 안 된다. 38선 이북 수십 km에서 진군을 멈추고 다음해 봄에 다시 전투하자고 제안했다.<sup>144)</sup> 섭영



진이 팽덕희의 전보를 받은 후, 부대의 2개월 연속 작전으로 매우 피로하고 물자 장비의 손실도 크다, 휴식을 보충해야 한다, 하물며 제일선의 병력은 중국군 역시 절대 우세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모택동에게 2개월 지연한 후 다시 전투를 하자고 건의했다.<sup>145)</sup>

그러나 모스크바는 정치적으로 고려하여 군사 행동을 멈출 수 없으며 “뜨거울 때 쇠를 다룬다”는 경향의 의견을 표시했다. 12월 5일, 소련 외교부장 그로미코가 중국 대사 왕가상(王稼祥)과 회견하였다. 왕가상이 소련측에 현재 조건에서 미국이 조선 문제를 중국·소련과 함께 대화할 것인가에 대해 견해를 물었을 때, 그로미코는 현재 미국은 조선 형세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건의가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왕가상이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군이 성공적인 진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38선을 넘어야 하는가”를 묻자 그로미코는 “조선의 형세를 볼 때 ‘뜨거울 때 쇠를 다룬다’는 속담은 매우 합당하다”고 대답했다.<sup>146)</sup> 그로미코가 사전에 성명을 발표한 것은 개인 견해였지만, 소련 외교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것이 바로 스탈린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같은 날 소련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주중 소련 대사에게 보내는 전보에 소련은 중국 대표가 UN 회의 장소에 출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전보는 로신이 즉시 주은래에게 통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즉 비신스키 보고에 따르면, 미국은 소위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가 조선에 간섭”하는 문제를 UN 대회 토론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소련 대표단은 이 문제가 의사 일정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일정에 반영되면 소련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의견을 알아야 했다. 전보에는,

144) 杜平, 『在志愿军总部』, p. 141 ; 『彭德怀年谱』, pp. 453~454.

145) 『聂荣臻回顾录』(解放军出版社, 1984), p. 740.

146) 1950년 12월 5일, 그로미코와 王稼祥의 회담 일기 발췌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 지3, 목록65, 문서주지828, pp. 20~21.

“만약 주은래가 소련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관점인가를 물으면 이번은 안보리 토론에서 맥아더가 보고한 때와 같다고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소련 정부는 중국 대표가 참석치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147)</sup>

중국은 정전 문제에 대해 이미 고려한 바 있지만 소련 정부와의 일치가 필요하였다. 12월 7일 새벽 3시 주은래는 긴급히 로신을 불러, 근래 UN 비서장 라이가 인도, 영국, 스웨덴 대표와 한 차례 중국 대표 오수권(伍修權)에게 중국의 정전 조건을 물었다.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 자신의 조건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은래는 서면 방식으로 중국 정부가 정한 5개항 조건, 즉 모든 외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한다. 미군은 대만 해협과 대만에서 철수한다, 조선 문제는 조선인 스스로 해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대표가 UN에 참가하고 UN에서 장개석의 대표를 축출한다, 4개국 외상 회담을 소집하여 대일본 화약(和約)을 준비한다 등을 제출하였다. 주은래는 “조선에서의 군사 행동 중지에 관한 현재 조건은 오수권에게 보내기 전에 소련 정부와 상의하여 소련 정부 자신의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표시하고 당일 회담을 희망하였다.<sup>148)</sup>

소련 정부는 즉각 회답을 보냈다. 스탈린은 중국이 제출한 5개항의 조건에 “완전 동의”를 하는 동시에 “우리는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며 군사 행동은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이 잠시 이 조건을 제출하지 않고 미국과 UN이 먼저 제출하는 조건을 기다리자고 건의했다. 스탈린은 심지어 문제 회담의 구체적 기술 방법을 기초하였다.<sup>149)</sup> 중국과의 협조 행동을 위해 소련공산당 중앙정치국은 같은 날 결의하고

---

147) 1950년 12월 5일, 소련연방공화국 중앙정치국회의 제79호 기록 발췌문, 러시아대통령 문서국, 전주지3, 목록65, 문서주지828, pp. 20~21.

148) 1950년 12월 7일, 로신이 모스크바에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3, 목록65, 문서주지336, pp. 17~19.

149) 1950년 12월 7일, 그로미코가 로신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3, 목록65, 문서주지336, pp. 20~21.

UN 대표단에 통지하였다. 비신스키는 군사 행동 정지에 관한 건의는 정확하지 않으며 소련 대표단 방안에 2개항을 더하였다. 즉 중국 5개항 조건 중 1조와 3조였다.<sup>150)</sup>

12월 8일, 주은래는 소련의 전문을 받자 UN 중국 특별 대표 오수권 및 고문 교관화(喬冠華)에게 전보를 보내어 “남이 급하면 나는 급하지 않다는 태도”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전보 내용은 스탈린의 견해와 일치했다.<sup>151)</sup> 이런 배경에서 모택동은 팡덕회의 진공의 잠시 정지에 동의할 수 없었다. 모택동은 세번째 전투 준비를 하여 38선을 신속히 돌파하라고 명령했다. 12월 13일, 모택동이 팡덕회에게 보내는 전문에는 “현재 미·영 각국이 우리 군에 38선 이북에서의 정지를 요구하여 군을 정비하고 전쟁을 다시 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38선을 넘어야 한다. 38선 이북에서 멈춘다면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하다”고 하였다.<sup>152)</sup> 모택동의 전문에는 분명히 ‘정치’라 하였는데, 미·영에 대해서만 아니라 소련과 조선 등 사회주의 진영 국가까지 고려한 의견이다. 12월 29일 전문에는 공격하지 않으면 “겨울 동안 우리는 휴식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자본주의 국가의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키며 민주 전선 각국 역시 동의하지 않으며 많은 논의가 발생한다”고 하였다.<sup>153)</sup>

38선의 월경이 정해졌으나 전투를 어떻게 전개하느냐가 문제였다. 팡덕회는 모택동의 전문을 받고나서 지원군 총부 장령과 공동으로 정황을 연구하고, 동계 휴식 계획을 포기하여 굳건히 피로, 병력 부족 및 공급 부족 등의 곤란을 극복하고 38선을 넘기로 하였다. 팡덕회는 현재 정세는 우리가 공격하기를 바란다, 모 주석은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현재 실로

---

150) 1950년 12월 7일, 소련연방공화국 중앙정치국회의 제79호 기록 발췌문, 러시아대통령 문서국, 전주지3, 목록65, 문서주지828, pp. 23~24.

151) 『周恩來軍事文選』, 第4卷, p. 125.

152) 『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p. 722.

153) 위의 책, pp. 741~742.

어렵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38선을 돌파하라고 요구했으므로 38선을 돌파하고 그 후 속도를 늦추자고 하였다.<sup>154)</sup> 12월 19일, 팽덕회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모택동에게 전문을 보내어 부대가 직면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동시에 “두 차례의 승리 후에 신속한 승리와 맹목적인 낙관이 각 방면에서 확대되고 있다. 소련 대사는 미군이 도망가니 우리에게 빨리 진격하라 하고 조선도 이 같은 요구를 한다. 내가 보기에 한국전쟁은 장기적이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적이 공격에서 방어로 바뀌면 전선이 단축되어 병력은 집중되고 중심이 강해져서 연합군에 대한 작전이 유리해진다”, “정치적으로 보면 적이 곧 조선을 포기하면 그 진영에 대해 매우 불리하다. 3개 사가 소멸당하면 몇 개의 교두 진지를 잃을 수 있고 곧바로 조선으로 철수할 수도 없다. 우리 군은 현재 안정된 진격을 하여 부대의 원기를 잃지 않으려 한다. 나는 8일, 38선 월경을 잠시 멈추고 충분한 준비 후 봄에 개전하자고 하였다. 13일, 답전을 받은 후 지금 38선 월경 작전을 따르고 있다. 의외의 변고가 없다면 패전은 없다. 하지만 공격은 저항을 받고 승리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sup>155)</sup>

모택동도 몸소 많은 전쟁을 경험한 군사 전문가이다. 전선의 부대가 극히 곤란한 조건에서 38선을 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 그래서 정치 요소를 고려하고는 군사적으로는 팽덕회가 제안한 장기전, 안정된 진격에 관한 안배를 적극 지지하였다. 12월 21일과 26일의 전보에서 모택동은 팽덕회가 제출한 공격법, 즉 38선 월경 전투 후 군대를 수습하고 전군의 주력(인민군 포함)을 몇십 km 후퇴시켜 휴식하게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였다.<sup>156)</sup>

154) 杜平, 『在志愿军总部』, p. 99.

155) 『彭德怀年谱』, p. 456.

156) 『毛泽东军事文集』, 第6卷(军事科学出版社, 1993), pp. 245~246, 249~250.

주 조선 소련 대사 라주비에프는 이런 안배에 대해 불만이였다. 그는 중조 연합군이 이 전투 후에 2개월 휴식하면 남조선 인민과 유격대들이 진압해 올 경우 어떻게 해결하느냐, 북경은 이미 38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38선을 치고 후퇴하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계속적인 작전이 유리하다, 2개월 후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워지면 유리하겠는가 등등을 물었다.<sup>157)</sup> 그러나 전세의 방향은 팽덕회의 생각대로였다. 세번째 전투는 38선을 돌파하여 서울을 점령하였지만 UN군은 작전상 후퇴하였으며, 중조 연합군이 어느 정도 기반을 점령을 한 외에는 적에 대해 어떤 타격도 주지 못하였다.<sup>158)</sup> 실제 전투력으로 말하면 중국 지원군은 전장에서 이미 쇠퇴일로였다. 따라서 팽덕회는 1951년 1월 8일, 지원군 부대에게 진공을 멈추고 전군이 휴식에 들어가도록 명령했다.

지원군의 계속적 진공의 정지 명령에 관해 주중 소련 군사 총고문 차하로프는 우선적으로 강력한 반대를 하였다. 1월 9일 상오, 그는 중국인민해방군 총참 작전실에서 전투가 이미 끝났음을 알고 조선의 부대가 전진을 멈추자 즉각 큰 불만과 이해할 수 없음을 표시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전쟁하는 군대가 적을 추격하지 않고 승리의 성과도 바라지 않을 수 있는가, 적에게 한숨 돌릴 기회를 주었으며 전기를 상실하는 착오를 범하였다고 반박했다. 섭영진이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며 이해시켰지만 차하로프는 자신의 견해를 견지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바로 팽덕회와의 면담을 요구했고, 지원군의 결정에 대해 큰 불만을 보였다. 부대 휴식이 지나치게 긴 것은 적당치 않으며 계속 남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택동이 이 사실을 듣고 1월 11일 팽덕회에게 급전을 보내 지원군은 인천 및 한강 이북으로 철수하여 3개월간 휴식하고 인천과 서울, 그리고 38선 이북의 방어를 책임진다, 조선측이 휴식 없이 전진할 것을 생각한다면 인민군의 전진 공격

157) 『彭德怀年谱』, p. 463.

158) 『彭德怀军事文选』(中央文献出版社, 1988), p. 383.

에 동의하며 조선 정부 스스로 지휘하게 라고 하였다. 10월 11일, 팡덕회와 김일성의 회담에는 중조 쌍방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아 쟁론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김일성은 지원군의 휴식에 억지로 동의하였지만 이러한 상황을 즉시 소련 대사에게 보고했다. 라주바예프는 스탈린에게 “팡덕회가 우경 보수로 병사를 동원하지 않고 승리를 좇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이와 동시에 모택동도 스탈린에게 전문을 보내 조선 전장의 실제 상황을 설명했다. 단 2, 3개월 휴식 후 “최종적으로 남조선 문제를 해결”하고 “최후의 승리를 보장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 군대가 1950년 6월~9월에 범한 착오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엇갈린 의견에 대해 스탈린은 쌍방의 갈등을 해결하였다. 스탈린이 라주바예프에게 회신하는 전문에는 “팡덕회는 오랜 경험이 있는 통솔자로 앞으로 일체 팡의 지휘에 따르라”고 언급하고 팡덕회는 당대 천재적인 군사 전문가라고 칭찬하였다.<sup>159)</sup>

스탈린이 직접 간여하면서 중조군의 세번째 전투 후 휴식을 취하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김일성은 1월 16일~18일 다시 팡덕회와 만났을 때, 조선인민군 단독 남진은 모험적이라고 표현하였고, 조선노동당 정치국이 토론을 통해 중국측이 제출한, 앞으로 더 나은 진공을 위해 2개월간 휴식한다는 건의가 정확하다고 하였다.<sup>160)</sup>

그러나 스탈린과 모택동은 잠시 휴식에 동의했을 뿐이지 정전 대화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일치된 확정 전략 목표는 현실적으로 중조

159) 王亞志, 『聂荣臻将军在抗美援朝战争中的两次谈话』, 『党史研究资料』, 第11期(1992), pp. 1~2; 王亞志, 『抗美援朝战争中的彭德怀·聂荣臻』, 『军事史林』, 第1期(1994), p. 11; 『彭德怀年谱』, pp. 465~466; 1951년 1월 15일, 모택동이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7, pp. 1~3; 王焰外, 『彭德怀传』(当代中国出版社, 1993), p. 444.

160) 1951년 1월 26일, 모택동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7, pp. 37~40.

군대로는 힘에 부치지만 미군을 남조선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UN 조선 정전 3인 위원회의 새로운 의안이 1951년 1월 11일 제출되고, 13일 UN 대회에서 통과하자 중국 정부가 거절하였다. 의안은 모두 5개 부분이다. 즉 즉각 정전을 실현한다, 1차 정치 회의를 거행하여 평화를 회복한다, 외국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하여 조선 인민이 정부를 선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배를 한다, 통일과 조선을 관리하기 위해 안배한다, 정전 후 1차 영국·미국·소련과 공산당 중국이 참가하는 회의에서 극동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는 대만의 지위와 UN에서의 중국의 대표권 문제를 포함한다. 이 일은 몇 시간 전에 미국에 통지되었고, 신의안은 미국 정부를 진퇴유곡에 빠뜨렸다.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이 의안에 동의하면 “조선 인민의 신임을 잃게 되고 국화와 여론의 분노를 일으킨다”, 동의하지 않으면 “UN 다수의 지지를 잃는다”고 하였다. 국무성은 이 의안을 지지한다고 최종 결정하고 “중국이 이 결의를 거절하기를 바라고 믿는다”고 하였다.<sup>161)</sup> 미국 정부의 처지와 상반되게 이 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중국측은 일이 순조로워질 수 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던 중국 학자 진겸(陳兼)은, 즉각 정전은 지원군이 합법적으로 38선 이남의 소유 기반을 점거할 수 있으며, 실패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고귀한 시간은 공격의 잠재력이 된다고 하였다.<sup>162)</sup> 그러나 모택동과 스탈린의 협상 결과는 중국 정부가 1월 17일 선철수 후정전을 견지하여 UN의 제안을 거절한 데서, 이는 애치슨을 한 시름 놓게 하였고 중국도 일차 절대 유리한 자신의 조건에서 정전을 실현할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정전 거절은 적측에 반박의 빌미를 제공했다. 중조 부대가 휴식하자 UN군은 대규모 반격을 해왔다. 중조군의 처지는 매우 위태로웠다.

161) 艾奇遜, 『艾奇遜回顧錄』(上海譯文出版社, 1969), p. 381.

162) Weathersby, K., “China’s Strategy to End the Korean War”, *Conference on New Evidence on the Cold War Asia*(Hong Kong : 9~12, January, 1996)에 논문으로 제출함.

팽덕회는 적의 반격을 의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궤멸에서 반격까지의 빠른 전환은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당시 중조 고급 지휘관들이 모여 형세 분석을 하고 중조군은 휴식을 보충한 후에 다시 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팽덕회는 조선측과 상의를 통해 1월 27일, 모택동에게 전문을 보냈다. 1951년 1월 11일, “UN 조선 정전 3인 위원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제국주의 내부 모순을 증가시키기 위해 중조 양군은 제한 정전을 옹호하며 인민군과 지원군을 오산, 태평리, 단구리선 북쪽 15~30km까지 철수한다는 소식을 전파하고 만약 동의하면 북경에서 전파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모택동은 형세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그는 둘째 날 팽덕회에게 휴식을 중단하고 계속 남진하라고 명령했다. “우리 군은 즉각 네번째 전투를 준비한다. 그 목적은 2만~3만 미군과 괴뢰군 및 대전~안동~선 이북의 지역을 소멸시키는 것이다”라 하였다. 모택동은 분명하게 “중국과 북조선군이 북쪽으로 15~30km 철수 및 잠시 정전에 찬동하는 공보의 발표는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다. 적은 이군이 북으로 일정 거리 후퇴하기를 바라고 한강을 봉쇄하면 군사 행동을 멈추려 한다”고 하고 이와 동시에 이를 스탈린에게 보고하면서, “이렇게 하면 국제 정세 측면에서 적당한가”를 물었다. 스탈린은 재차 모택동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국제적 관점에서 적이 인천과 서울을 점령하지 못하면 중조 부대는 적의 진격 부대에 중대한 타격을 준다. 매우 적합하다”고 하였다.<sup>163)</sup>

모택동과 스탈린이 생각한 네번째 전투 목표는 당시 조건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UN군의 강력한 공세로 중조군은 북으로 철수해야 했다. 팽덕회는 귀국하여 모택동을 만나 지원군의 어려운 처지를 강조하고, 결국에는 모택동이 인식하게끔 하였다. “적이 크게 소멸되지 않으면 조선에

163) 『彭德怀传』, p. 446 ; 1951년 1월 28일, 모택동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보문 ; 1951년 1월 30일, 필리포프가 모택동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7, pp. 41~44.



서 퇴각하지 않는다. 크게 적을 소멸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군이 적을 38선 남북 지역까지 이르게 하고 우리 두번째 지원 부대 9개 군을 이르게 하여 다시 유력한 새 전투를 진행한다”, “결국 미국은 계속 작전을 견지할 것이고 미군은 계속 대량의 보충을 받아 아군과 장기 소모전 형세가 된다. 아군은 반드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하며, 몇 년의 시간 동안 미국은 80만 명을 소모하게 되어 어려움을 알고 퇴각하면 비로소 조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164)</sup> 그러나 이후 몇 개월의 전투는 지원군이 전력을 다했으나 커다란 희생과 엄청난 손실을 지불하였고, 미군의 진공을 38선 부근에서 저지했을 뿐이다.<sup>165)</sup>

전쟁의 교착 상태에서 스탈린은 평화 회담을 고려하였다. UN 주재 소련 대표 말리크와 부대표 차라푸진은 5월 초에 미국측과 접촉하여 소련의 평화 회담 희망을 흘렸다. 5월 18일, 프린스턴 대학을 퇴임한 소련 문제 전문가 조지 케년이 워싱턴에 가서 애치슨을 만나 소련측과의 회담 임무를 받아들였다. 5월 31일, 케넌은 개인 자격으로 말리크를 방문하여 “미국은 UN 혹은 어떤 위원회 혹은 기타 방식으로 중국공산당과의 회담을 준비한다”고 제안하였다. 6월 5일, 말리크는 제2차 회담에서 케넌에게 “소련 정부는 평화를 원하며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빠를수록 좋다. 다만 소련은 조선에서의 충돌에 참가하지 않아 소련 정부는 정전 문제의 어떤 토론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말리크는 이어서 만약 케넌 선생이 그 개인의 의견을 듣고 싶다면 그는 미국 정부가 조선·중국과 접촉해야 한다고 했다. 케넌은 말리크와 회담하면서 광범한

164) 『建国以来毛泽东文稿』, 第1册, pp. 151~153; 1951년 3월 1일, 모택동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보문; 1951년 3월 3일, 필리포프가 모택동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 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7, pp. 78~82, 89.

165) 『彭德怀年谱』, pp. 481~505 참조.

극동 국제 사무 문제 즉 대만과 대일화약 등을 제안하지 않았음에 주의하였다. 이는 중국이 제안한 조건이 전제가 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당시 미국 국무성이 모스크바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말이다.<sup>166)</sup>

이와 동시에 중국측도 전쟁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1951년 5월 하순, 모택동의 주도로 중공 중앙은 조선 전략에 대해 전면적 회고를 하였다. 총참모장 대리 섭영진의 회고록에서 이번 회의 과정과 결과를 개괄하였다. “다섯번째 전투 후에 중앙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였고, 다수 동지가 아군은 38선 부근에서 멈추고 대화와 전쟁을 병행하면서 대화 해결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도 이 의견에 동의했다. 나는 적을 조선 북부에서 몰아낸 정치 목적은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38선에 멈춰서 전쟁 전 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모두 좋게 받아들였다”고 했다. 회의에서 이 방침이 정해졌다.<sup>167)</sup> 모택동은 조선과 소련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김일성은 6월 3일 북경에 도착하여 모택동과 회담하였다. 이어서 모택동은 스탈린에게 김일성과 고강을 접견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소련에서 요양하는 임표도 회담에 참가하길 바랐다. 스탈린의 동의를 거쳐 6월 10일, 김일성과 고강은 소련에서 온 비행기로 모스크바에 갔다.<sup>168)</sup> 고강과 김일성은 스탈린과 견해를 나누고 6월 13일, 모택동에게 보낼 보고서를 만들었다. 스탈린도 전문에서 “우리는 현재 정전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sup>169)</sup>

그러나 중국은 얼마 전에 유리한 조건에서 UN의 정전 건의를 거절했

166) 미국국무원 편,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제7권(1956), 제1부분(워싱턴, 1983), pp. 462, 507~511; 『板门店谈判』, p. 123~125; 『艾奇逊回顾录』, pp. 409~411.

167) 『聂荣臻回顾录』, pp. 741~742.

168) 1951년 6월 9일, 모택동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9, pp. 23, 28~29.

169) 1951년 6월 13일, 필리포프가 모택동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9, pp. 31~32.

기 때문에, 지금은 피동적 입장으로 주도적인 정전 요구를 제출하기 어려웠다. 모택동은 재차 스탈린에게 도움을 청했다. 6월 13일, 모택동이 고강과 김일성에게 보내는 회신에는 스탈린이 곤란하다고 여기는 문제를 제출했다.

정전 문제를 어떻게 제출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스스로 제출하는 것은 조선과 중국에 대해 모두 적당치 않다. 최근 2개월 동안 조선 군대 각국 지원군은 모두 수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1. 적측의 제출을 기다린다.

2. 가장 좋기는, 소련이 케년의 성명에 근거하여 미국에 정전 문제를 시험한다. 동시에 상술한 두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 즉 한편으로 소련은 시험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적측이 정전 문제를 제출하면 조선과 중국은 동의한다. 가장 좋게는 당신들이 의견 교환을 청하여 필리포프 동지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다.

3. 정전 조건 : 38선 경계를 회복한다. 북과 남으로부터 하나의 제외된 지역을 구획하여 중립 지역으로 한다. 중립 지역에서는 북조선 영토에서 구획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남북조선은 서로 과실이 있다. 중국의 UN 진입 문제는 이 문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은 UN이 실제로 침략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에 UN 진입 문제는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꼭 고려해야 할 것은 대만 문제를 조건으로 하느냐이다. 그들과 흥정하기 위해 이 문제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대만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하려는 상황에서 우리는 상응하는 양보를 만든다.

평화를 위해 우선 조선 문제를 해결한다. 당신들이 빌리포프 동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주기 바란다.<sup>170)</sup>

---

170) 1951년 6월 13일, 모택동이 고강·김일성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

고강과 김일성은 모택동의 전보를 스탈린에게 전했다.<sup>171)</sup> 말리크가 이전에 미국측에 소련이 평화 회담 문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스탈린은 모택동의 요구에 만족한다고 결정했다. 6월 23일, 말리크는 UN 방송 연설에서 교전 쌍방의 정전 건의를 제출했다. 둘째 날, 스탈린은 모택동에게 전보를 보내 “말리크의 발언에서 정전 문제 제출의 승낙이 이미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sup>172)</sup> 6월 27일, 소련 주재 미국 대사 커크와 그로미코가 회담하고, 미국은 말리크의 연설은 소련 정부의 관점을 대표한다고 확인했다. 6월 30일, UN군 군 총사령 리지웨이는 방송을 통해 정식으로 정전 건의를 했다. 7월 1일, 중조측은 리지웨이의 건의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sup>173)</sup> 따라서 한국전쟁은 길고 어려운 “대화화 전쟁의 병행” 단계에 진입하였다.

6월 30일, 모택동은 스탈린에게 보내는 전보에서 “말리크의 발언은 우리가 평화 회담의 주도권이 있음을 보증했다”고 승인했다. 동시에 “대화가 개시되면 당신들이 직접 그들을 이끌어 불리한 국면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sup>174)</sup> 스탈린은 중조측에 “직접 주도”하여 정전 대화를 한다고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문헌 당안에서는 전 대화 과정에서 모스크바와 북경 사이의 전보는 빈번히 오갔으며, 중조 방면이 채택한 구체적 조치와 확정된 구체 방침은 모두 스탈린에게 비준받았음을 알 수 있다.

1952년 1월 말, 조선측은 “전쟁의 계속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다.<sup>175)</sup>

지45, 목록1, 문서주지339, pp. 57~59.

171) 1951년 6월 14일, 고강과 김일성이 모택동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9, p. 60.

172) 1951년 6월 27일, 그로미코가 柯克을 회견한 일기 발췌문을 자세히 참조,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3, 목록65, 문서주지828, pp. 202~203; 『板门店谈判』, pp. 122~128.

173) 1951년 6월 30일, 모택동이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9, pp. 90~91.

174) 1951년 6월 30일, 모택동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39, pp. 90~91.

후에 정전 대화는 전쟁 포로 문제로 쟁의가 발생하여 연기되었다. 7월 14일, 김일성은 모택동에게 미국측 조건을 접수해야 즉시 정전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모택동은 7월 15일의 전보에서, 김일성을 적극 설득하여 적의 무차별 폭격 앞에서 도전적이고 사기성이 농후한 건의를 받아들이면 중조측의 정치와 군사 면에서 매우 불리하다고 얘기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인민군과 지원군에 더 큰 손실이 있었다. 그러나 중조 인민은 역시 “전쟁 중에서 자신의 실력을 강화하여 전세계 평화 애호 인민에게 침략 전쟁에 반대하도록 고무하고 전세계 평화 보위 운동을 추진하였다” 전쟁은 미국 주요 역량을 동방에 끌어들여 끝없는 손실을 입혔으며, 소련의 건설과 세계 민족 혁명 운동에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이는 새로운 세계 대전의 발발이 늦춰졌음을 의미한다.” 모택동은 중국이 “전력을 다해 조선 인민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한다고 표시하고 김일성에게도 “당신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들과 함께 펠리포프 동지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청하겠다”고 하였다. 모택동은 또 중국의 이 건의와 방침은 “펠리포프 동지에게 얘기할 수 있고 그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하였다. 7월 16일, 김일성의 회신 전문에는 중국의 의견을 접수하였으나 소련 대사와 대화하면서 “개성에서 힘써 싸워 신속히 정전 협정의 체결, 정전 실현과 제네바 협정에 따른 포로 교환을 한다. 이런 요구는 평화 애호 인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개성에서의 피동적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견지하였다.<sup>176)</sup>

이에 대해 스탈린은 분명히 모택동을 지지하여 중국의 “정전 대화에서의 입장은 매우 정확하다”고 하였다.<sup>177)</sup> 8월 20일, 스탈린과 주은래가 회

175) 1952년 2월 8일, 모택동이 펠리포프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42, pp. 81~83.

176) 1952년 7월 18일, 모택동이 펠리포프에게 보낸 전보문; 1952년 7월 17일, 拉祖瓦耶夫가 바실리에프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 343, pp. 72~75, 65~68.

동하였다. 주은래가 중조 사이에 포로 문제로 이견이 있을 경우에 대해 반응하자, 스탈린은 다시 “모택동이 옳다. 이 전쟁은 미국의 원기에 손상을 주었다. 북조선은 전쟁 중의 희생 이외에 어떤 것도 패하지 않았다”, “당연히 조선을 이해시켜야 한다. 그들은 커다란 희생이 있었지만 이런 큰일에는 의지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하였다.<sup>178)</sup> 스탈린의 지지는 모택동의 용기와 영웅적 기개에 감탄한 것뿐 아니라 깊은 음모가 있었을 것이다. 미국의 인력, 물력과 정력은 동아시아에서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인해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소련과 미국의 균형 면에 대해서 유리하다. 어쨌든 중소 지도자들의 모스크바 회담 후 1952년 10월 8일, 조선의 정전 대화는 무한정 휴회되었다.

전세의 발전과 정치 심리의 고려에서 중국 지도층은 미국과의 전쟁을 장기적으로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12월 16일, 팽덕회는 공군 당위원회에서 한국전쟁은 내년에 확대될 것이며 우리 방침은 한편으로 싸우고 한편으로 건설한다고 언급하였다.<sup>179)</sup> 이후 모택동도 스탈린에게 “우리는 이후 일련의 시간 내(예컨대 1년 내)에 조선에서의 군사 행동은 빈번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적은 우리 후방 서해안과 동해안 일대에서 상륙 작전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모택동은 스탈린에게 이를 위해 국내에서 신병 모집을 하였으며 “내년에는 인민 지원 부대에 25만의 보충

177) 1952년 7월 16일, 필리포프가 크라소프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43, p. 69.

178) 1952년 8월 20일, 스탈린과 주은래의 회담 기록,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29, pp. 54~72. 일본 학자和田春樹의 견해는 상이하다. 그에 따르면, 1952년 주은래가 소련을 방문할 때, 조선에서는 정전을 원했고, 소련 역시 정전을 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측이 정전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탈린은 주은래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Wada Haruki, “Stalin and the Japanese Communist Party”를 참조. *Conference on New Evidence on the Cold War Asia*(Hong Kong : 9~12, January, 1996)에 논문으로 제출함. 그러나 이러한 논법은 분명히 논거가 불충분하다.

179) 『彭德怀年谱』, p. 538.

인원을 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그리고 해군을 조선에 참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중국은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해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모택동의 생각은 스탈린의 긍정적인 반응과 지지를 얻었다.<sup>180)</sup> 1953년 2월 7일 모택동은 1차 정치협상회의에서 자신감에 차, “항미원조 투쟁은 계속 강화된다”고 선포했다. “우리는 즉각 정전을 원했고 해결을 기다렸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는 이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좋다. 싸우자. 중조 인민의 완전한 승리의 그날까지”라고 하였다.<sup>181)</sup> 그러나 1개월 후 스탈린이 사망했다. 그러자 소련의 한국전쟁에 대한 정책이 곧바로 변화를 가져왔다. 배경은 모스크바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스탈린의 장례가 끝나자 후임자들은 국제 관계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대외 정책 신방침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방침의 기점은 조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3월 13일, 말리크는 라주바예프에게, UN 부대 총사령 클라크에게 3주 전 교전 쌍방의 부상 포로 교환 문제로 김일성과 팽덕회에게 보낸 서신을 넘기라고 지시했다.<sup>182)</sup> 3월 19일, 소련 부장회의에서 결의하여 소련 정부는 모택동과 김일성에게 보내는 편지와 UN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소련 대표단에게 보내는 지시를 비준했다. 중조 지도자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한국전쟁의 문제로 “지금까지의 노선을 계속 집행하거나 이 노선이 현재의 정치 특징과 우리 3국 인민에게서 나오는 이익의 변화와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소련의 새로운 지도층은 현재 상황에서 과거부터 진행된 노선을 기계적으로

180) 1952년 12월 17일, 1953년 1월 7일, 모택동이 세메노프에게 보낸 전보문; 1952년 12월 27일, 1953년 1월 27일, 세메노프가 모택동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45, 목록1, 문서주지343, pp. 105~114, 125~128, 115~116, 139. 세메노프는 스탈린의 대칭이다.

181) 『建国以来毛泽东文稿』, 第4册(中央文献出版社, 1990), p. 45.

182) 1953년 3월 14일, 拉祖瓦耶夫가 모스크바에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 3, 목록65, 문서주지830, pp. 58~59.

집행할 수 없으며 주동적인 정신을 표현해야 한다, 혹은 적의 주동 정신을 이용하여 중국과 조선 인민의 근본 이익에 따라, 그리고 기타 평화에 호 인민의 이익에 따라 중국과 조선이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로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모스크바는 구체적인 안배를 하였다.

1. 김일성과 팽덕회가 클라크 장군에 대해 요청한 2월 22일 부상 포로 교환 문제 호소는 긍정적 회답을 얻었다.

2. 김일성과 팽덕회의 답서 발표 후, 중화인민공화국의 권위 대표(주은래)는 북경에서 성명을 발표하여 다시 부상 포로 교환 건의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표명하였고 동시에 포로 문제의 적극 해결을 언급했다. 따라서 조선의 정전과 평화 조약은 이미 무르익었다.

3. 북경이 발표한 성명과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상 김일성은 평양에서 정치 성명을 발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대표의 상술한 성명의 정확성을 설명하였고 충분한 지지를 표시하였다.

4.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북경 성명과 평양 성명을 받은 후 소련 외교부는 북경과 평양의 입장 표명을 완전히 지지한다.

5. 4개 조치를 배합하여 소련 대표단은 뉴욕 UN 대표 대회에서 일체 필요한 행동을 채택하여 이상 신정채 방침과 실시를 지지하고 추진한다.

소련 부장회의는 UN 대회 소련 대표단이 폴란드 대표단과 상의한, “새로운 세계대전 위협에 대한 폴란드 결의 초안에 관해 아래와 같이 조선 문제를 포함한 수정, 즉 제안 중의 제6조(모든 포로를 조국에 귀환시킨다)를 없애고 이하 문자로 대신한다. 6. 쌍방 정전 회담을 즉각 회복하여 전력으로 부상 포로 교환 문제 협의를 달성하고, 또한 모든 포로 문제 협의를 달성함으로써 한국전쟁 중지부에 방해가 되는 장애를 없앤다”에 대해 질책하였다.<sup>183)</sup>



3월 21일, 소련 신지도층은 모두 모스크바의 스탈린 장례에 참가한 주은래와 회담하여 모스크바의 신방침을 제출하였다. 주은래는 즉시 모택동에게 보고서를 보냈다.<sup>184)</sup>

조선은 소련의 결정에 찬성했다. 평양에 가서 모스크바의 지시를 전달한 쿠츠나조프와 페드린의 보고에는, 김일성은 현재의 형세가 다시 연장되면 조선과 중국 및 사회주의 진영 모두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과 포로 반환의 숫자를 토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소련의 건의는 “매우 지혜롭고 정확하여” “반드시 빨리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sup>185)</sup> 중국 지도층은 소련 입장에 대해, 현재 역사 문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행동에서 보면 북경은 모스크바의 안배에 따라 클라크에게 보내는 답신과 주은래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4월 26일, 판문점 대화가 다시 열렸다.

중국측이 이때 전쟁의 종단을 생각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 1953년 여름, 중국 지원군은 병력 면에서 절대 우세였고 강한 군대, 탄약 충족, 사기 왕성, 전선 진지의 공고, 반상륙 작전에 대한 전면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중공 중앙군사위원회가 지원군 총부에 보내는 지시에는 정전은 담판 회의장의 일이다, 군대는 “싸울 뿐 정전에 관여치 않는다”, 일체를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하였다. 이에 중조군은 최후 대화 단계에서 연속적으로 세 차례 진공하였고, 적군 공격 목표는 104개처, 점령 영역은 240km<sup>2</sup>였다.<sup>186)</sup> 모택동은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이렇게

---

183) 1953년 3월 19일, 蘇聯部長會議決議,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전주지3, 목록65, 문서주지 830, pp. 60~71.

184) 『周恩來年譜』, 上卷, pp. 290~291.

185) 庫茲涅佐夫와 費德林이 撲洛托夫에게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의정책문서국, 전주지 059a, 목록5a, 문서주지11, 권주지5, pp. 120~122.

186) 譚旌樵主編, 『抗美援朝战争』(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0), p. 289, pp. 325~326; 『板门店談判』, pp. 261~262.

싸운다면 2차, 3차, 4차 적의 모든 전선은 파괴될 것이다”라고 칭찬하였다.187) 이후 모택동은 소련 대사에게 똑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즉 순수 군사적 관점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이용하여 미국을 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188) 당연히 모택동은 모스크바가 정한 총방침에 위배되는 것은 생각지 못했다. 어려웠던 판문점 대화는 마침내 결과가 있었다. 7월 27일, 조선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모택동이 최후로 따른 모스크바의 지휘였다. 스탈린은 이미 사라졌다. 한국전쟁도 끝이 났다. 사회주의 진영 중 아시아주, 특히 중국에 대한 소련의 영도적 지위는 이로부터 쇠락하기 시작했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러시아대외정책문서국 자료

러시아대통령문서국 자료

러시아국방부문서중심 자료

러시아정책문서국 자료

SD문서(沈志華 소장 소련 문서).

### <2차 자료>

187) 『毛泽东选集』, 第5卷(人民出版社, 1977), p. 102.

188) 1953년 7월 29일, 庫茲隆佐夫가 외교부에 보낸 전보문, 러시아대외정책문서국, 전주지 05a, 목록5a, 문서주지11, 권주지5, pp. 156~158.

- “美国是如何卷入朝鲜战争的”，『世界历史』，第3期(1995).
- 『建国以来毛泽东文稿』，第1册(中央文献出版社，1987).
- 『建国以来毛泽东文稿』，第4册(中央文献出版社，1990).
- 『毛泽东军事文集』，第6卷(军事科学出版社，1993).
- 『毛泽东选集』，第5卷(人民出版社，1977).
- 『聶榮臻回顧錄』(解放军出版社，1984).
- 『彭德怀军事文』(中央文献出版社，1988).
- 柯瓦僚夫，“毛泽东·斯大林与朝战”，『远东问题』，第6期(1991).
- 柯瓦僚夫，“毛泽东·斯大林与朝战”，『远东问题』，第1~3期(1992).
-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部編，『中国人民志愿军抗美援朝战史』(军事科学出版社，1988).
- 金澈凡編，『朝鮮战争揭秘：40年候的證據』(서울：1990, 영문판).
- 金澈凡，『赫鲁晓夫回忆录』(东防出版社，1988, 증문 번역본).
- 洛博夫，“在朝鲜上空的米格走廊”，『航空兵与宇航学』，第11期(1990).
- 譚旌樵 主編，『抗美援朝战争』(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0).
- 杜平，『在志愿军总部』(解放军出版社，1989).
- 力平，『开国总理周恩来』(中共中央党校出版社，1994).
- 미국국무원 편,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제7권(1956), 제1부분(워싱턴：1983).
- 師哲，『在历史巨人身边』(中央文献出版社，1991).
- 蘇聯 外交部，“關於朝鮮战争的背景报告”(1966. 8. 9).
- 沈志華，“「中苏友好同盟互助条约」的签订：愿望和结果”，『中共党史研究』，第2~3期(1998).
- 沈志華，“周恩来赴苏谈判的目的和结果：关于1950年10月中苏领导人会谈的论争”，『党史研究资料』，第4期(1996).
- 沈志華，“中国出兵朝鲜的决策过程”，“毛泽东派兵入朝鲜战争的决心；关于

- 10月2日毛泽东给斯大林的电报的论争”，『国外中共党史研究』，第2期(1996).
- 沈志華，“中国出兵朝鮮的决策过程”，『党史研究资料』，第1期(1996).
- 沈志華，“中苏条约与苏联在远东的战略目标”，『党史研究资料』，第9期(1997).
- 艾奇遜，『艾奇遜回顧录』(上海译文出版社，1969).
- 奧亞洛夫，“1950~1953年朝鮮戰爭中的蘇聯空軍”，『近现代史』，第4期(1998).
- 王亞志，『聂荣臻将军在抗美援朝战争中的两次谈话』，『党史研究资料』，第11期(1992).
- 王亞志，『抗美援朝战争中的彭德怀·聂荣臻』，『军事史林』，第1期(1994).
- 王焰外，『彭德怀传』(当代中国出版社，1993).
- 王焰主編，『彭德怀年報』(中国人民出版社，1998).
- 王定熱主編，『当代中国的空军』(中国社会科学出版社，1989).
- 尤金，“毛宅东谈共产国际与斯大林的对华政策”，『远东问题』，第5期(1994).
- 熊華源·廖心文，『周恩来总理生涯』(中国人民出版社，1997).
- 李海文，“中共中央何时志愿军出国作战”，『党的文献』，第5期(1993).
- 紫成文·趙勇田，『板门店谈判』(海防军出版社，1989).
- 張希，“中国人民志愿军入朝前夕‘突然暂停’”，『党史研究资料』，第1期(1993).
- 中共中央文獻研究室·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編，『周恩来军事文选』，第4卷(中国人民出版社，1997).
-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周恩来年報(1949~1976)』，上卷(中央文献出版社，1997).
- 中國人民解放軍歷史資料總書編輯審查委員會，『空军回忆史料』(解放军出版社，1992).

- 哈利迪, “苏联在朝鲜的空战”, 威廉姆斯編, 『一场革命战争: 朝鲜与战后世界的转变』(Chicago : 1993, 영문판).
- Bajanov, E. “Assessing the Politics of the Korean War 1949~51”, *CWIHP Bulletin*, No. 6~7(1995, 1996).
-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 Goncharov, Sergei N., John W. Lewis & Litai, *Uncer Partner,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 Mansourov, A., “Stalin, Mao, Kim and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ept. 16~Oct. 15, 1950 : New Evidence from the Russian Archives”, *CWIHP Bulletin*, No. 6~7(1995, 1996).
- , “Soviet-North Korean Relations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aper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Hong Kong : 1996. 1).
- Park, Mun Su, “Stalin's Policy and The Korean War : History Revisited”, *Korea Observer*, Vol. 25, No. 3(1994).
- Petrov, V., “Mao, Stalin and Kim Il Sung : An Interpretative Essay”,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13, No. 2(1994).
- Wada Haruki, “Stalin and the Japanese Communist Party”, *Conference on New Evidence on the Cold War Asia*(Hong Kong : 9~12, January, 1996).
- Weathersby, K., “Korean, 1949~1950 : To Attack, or Not to Attack? Stalin, Kim Il Sung, and the Prelude to War”, *CWIHP Bulletin*, No. 5(1995).
- , “China's Strategy to End the Korean War”, *Conference on New Evidence on the Cold War Asia*(Hong Kong : 9~12,

January, 1996).

-----,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1945~1950 : New Evidence from the Russian Archives", *CWIHP Working Paper*, No. 8(1993).

-----, "Stalin and a Negotiated Settlement in Korea, 1950~1953", Paper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Hong Kong : 1996. 1).

-----, "The Soviet Role in the Early Phase of the Korean War : New Documentary Evidence", *The Journal of American-East Relations*, Vol. 2, No. 4(1993).

Торкунов, А. & Е. Уфимцев, Корейская Проблема : Новьй Взгляд, Москва, 1995г.

Волгогонов, Д. "Следует Ли Этого Бояться?", *Огонёк*, 1993г. No. 26.

(Abstract)

## Russia and the Korean War

Shen Zhi Hua(History)

In the fifty years since the occurrence of the Korean War, there has been a lack of documents and evidence to study Russia's influence and its role and function on the Korean War. Until now, most research has relied on inference to analyze and critique this topic. But, in the last several years, there has been a drastic change due to the release of a large amount of Russia's secret historical documents. Thus, due to this new development, each nation's scholars can continue and sustain this research. As a result, Russia's influence on the Korean War is much more factual and accessible.

Evidence demonstrates that by the end of World War II, there was only a rough outline for the policy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In June 1945, a few months after the Yalta Agreement, the foreign department, 2nd Ministry of Far Eastern Affairs submitted a brief that

stated the basic principles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Prior to World War II until 1949, Russia attempted to have either a trusteeship, or in collabo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create a unified Korea, which has friendly relations with Russia. But after the gradual discor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Russia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North's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based on popular elections to accelerate and advance unification, one that contains friendly politics with Russia. In the summer of 1948, the two Koreas respectively held elections and established two independent states. Russia stated that U.S.-Russia troops should be withdrawn and restricted on the peninsula, whereby Russia readily enacted Afterwards,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parties became strained and deadlocked.

In the midst of this tension, Kim Il Sung told Russia of its intention to take military action against the South, which Stalin at first opposed. But, Stalin's fundamental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changed after Mao Zhe dong's visit to Moscow in 1950. On January 30, in Stalin and Mao's third meeting, Stalin expressed for the first time his new policy. In reality, Stalin had already made plans and had intention of carrying them out for military assault toward the South, which meant that Russia participated in the war. Vilihof, in response to Stalin's proposal in August, headed the Russian airforce, making this the first act of Russia'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Of importance, the secret documents revealed several exchanges of telegrams between Moscow, Beijing, and Pyongyang. These telegrams demonstrated the concrete planning strategy of the Korean War, as well as the fundamental course and dispute of tactics and method. In addition,



these messages stated when to fight and when to pull out. During this course of action, Russia guided North Korea from the beginning stage to the end of the war. The conclusion of the Korean War was the armistice on July 27, 1953. This was the last time that President Mao was under the influence of Russia. Russia's role to guide the Communist bloc nations, especially China, hereby started to degenerate.

Key Words : the Korean War, Russia, Mao Zhe dong, Stalin.